발간등록 75-5020000-000010-08

첨단과학도시 포항

열린 포항

2003년 봄호
통권 제43호
www.ipohang.org

월포리에 가서

시인 / 이종암
[포항문학] 등단
푸른시 동인
경북작가회의사무국장
포항예술문화연구소 회원
포항 대동고등학교 재직

먼 곳의 그녀를 닮았다
작은 고깃배들 모두 닻 내리고
푹 묻혀 하룻밤 묵어가는 월포리

머리 위로 보름달이 떠도 좀체
얼굴 내밀지 않는 무딘 해안선
속마음 헤아릴 길 없는
그녀의 몸 같은 월포리

밤 깊은데 혼자 몸 아프다
생각만 해도 부신 그대 오지 않고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달빛이 내려 온다

깊은 밤바다에 파묻힌 고깃배들
모두 잠들고
나만 길 위에 서 있다
숙박에 들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사진 / 서태조 사진작가 (포항시 문화공보과 근무)

열린포항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
-시정목표-
1.봉사하는 민주행정
2. 화합하는 애향시민
3. 역동하는 지역경제
4. 웅비하는 첨단도시

제2의 영일만 기적!
첨단과학도시 포항이 이룩하겠습니다.

표지설명 / 죽장면 복사꽃
작가 / 서태조 (포항시청 문화공보과)

市花-장미

市木-해송

市鳥-갈매기

CONTENTS

마음을 여는 창 / 월포리에 가서

02 _ **열린칼럼** _ 박영근 / 조영대 / 채치범
08 _ **포항사람** _ 황인 / 박훈포
12 _ **우리고장의 명품을 찾아서** _ 곡강 시금치
13 _ **연중기획** _ 4대 성장엔진산업
16 _ **테마기획** _ 생명공학연구센터
20 _ **우리고장의 명소를 찾아서** _ 청정골 "신광"
22 _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와 역사** _ 뇌성산의 매새이야기
지역의 3 · 1운동
26 _ **교육현장으로 간다** _ 신광초등학교
28 _ **우리꽃 우리나무** _ 병아리 꽃나무
29 _ **영일만 문예광장** _ 문화공간 / 문예논단 / 문화가 뉴스
34 _ **포항사람** _ 이영출
36 _ **첨단기술로 승부를 건다** _ 그린케미칼
38 _ **제3회 포항해변 마라톤 대회**
40 _ Cyber World _ 첨단IT기술 / 전자민원 서비스
42 _ **10대들의 공간** _ 만장크루 / 포항 청소년 쉼터 / N세대 뉴스
45 _ **우리고장의 유래와 전설** _ 칠성강의 효자
46 _ **오광장** _ 권현구 / 최현우 / 박지영
49 _ **특별기고** _ " 새 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 김천수
50 _ Pohang Good News
52 _ **포항시의회 소식**
56 _ **추억속의 그때 그시절** _ 소 달구지
58 _ **리빙매거진** _ 재미있는 건강상식 / 생활의 지혜
60 _ **알림터**
62 _ **향우회 소식**
63 _ **유머천국**
64 _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퍼즐세상**

사진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2003년 봄호 (통권 제43호)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정장식 / 편집인 : 포항시 문화공보과장 김완용
발행일 : 2003년 3월 20일

제2의 영일만 기적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제2의 도약의 신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첨단과학도시 육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4대 엔진을 탑재한 거함 '포항호'가 출범, 순항중에 있다

박영근/
한동대학교 특별 초빙교수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반세기, 53.4km를 관통하는데 꼭 반세기가 걸렸다.

지난1월 5일 오후 2시, 미사일도 뚫지 못하던 그 끝없는 대결의 철조망이 무너졌다. 1백여 명을 태운 버스가 통일전망대를 떠나 휴전선을 넘어서자 이제 동북아 시대를 여는 긴 장정이 시작 되었다는 환희와 함께 이제야말로 우리 포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환호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포항시는 민선3기를 출범 시키면서 4대 성장엔진의 육성을 통해 환동해 경제권의 시대를 열고,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해 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시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현실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포항은 30여년전 황량한 갯벌위에 세계적 철강회사인 포스코를 건설하여 영일만 신화를 일구어 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도약의 신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첨단과학도시 육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4대 엔진을 탑재한 거함 '포항호'가 출범, 순항중에 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최종 목적지까지 항해를 멈추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이것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서는 보다 큰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내에 주저 앉아 버릴 수도 있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총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도 장미빛으로만 예단할 수는 없다. 1조7천277억원이 투자되는 영일만 신항 건설도 마찬가지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영일만 신항 건설은 현재까지 2천56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당초의 계획이 다소 축소되고, 민자 유치도 여의치 않아, 한때 중지상태에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금년에 32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북 방파제 완공에 이어 남 방파제가 완공된다면 3만톤급 콘테이너선(船) 4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명실공히 대형 부두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입항하는 물동량을 대륙으로 수송하는 수단이 없다면 이 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장 엔진이 활력을 찾느냐, 아니면 꺼져 버리느냐 하는 것은 미래 포항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1981년 8월, 포항상의지(통권 68호)에 '지하자원의 보고, 수산자원의 보고, 관광자원의 보고, 동해 중부선을 부설하자.'라는 글을 쓰면서 동해 중부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방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꿈으로만 여겨 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이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다.

동해 중부선이 완공되면 포항에서 북한의 나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을 통과한 화물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독일의 함부르크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까지 직행하는 획기적인 물류 이동이 가능해 진다. 특히, 부산으로 집합되던 화물은 내륙지방에서 혼잡한 부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항의 영일만 신항으로 모여 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송비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보다 수출물량이 4배가 넘는 일본의 화물이 해상 수송보다 안전하고 빠른 철도를 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포항으로 모여들기 마련이다.

한국과 서유럽의 유통 물동량은 컨테이너로 연간 80만개,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항까지 바닷길은 1만9,200km, 수송기간은 평균 26일, 컨테이너 한 개당 운임은 1,200달러에서 1,400달러인데, 포항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의 TSR을 이용하면 거리는 6,500km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8일간이 단축되며, 운임은 한 컨테이너당 600달러로 해상수송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2조4천410억원을 책정, 강릉에서 군사 분계선까지 127km와 포항-삼척간, 171.3km를 2014년까지 개통목표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해안 시대를 예고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가 열차바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궤간 가변차량 개발과 북한지역의 노반 보수를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 이미 현물지원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되어 운행되면 러시아는 연간 운임료만 4억달러, 북한은 1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옛날 마케토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던 "희망"이란 두글자를 우리 시민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류문명의 진행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문화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한 세기를 지배하였지만,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지금은 미국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지배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이동중이라 한다. 아시아라면 어디일까? 일본도, 중국도 아니다. 그 곳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21세기 문명의 귀착지는 태평양의 관문도시인 우리 포항이 될 수 밖에 없다.

포항에서 출발한 동해 중부선 열차가 휴전선의 철조망을 넘어 뜨리고, 원산, 나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으로 기적을 울리면서 당당하게 입성하는, 이 꿈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지혜와 자신감과 노력에 달렸다.

따라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만들어 내는 일은 포항시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포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포항을 꿈꾸며…

우리 포항은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이미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문화축제를 통해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문화를 브랜드화해 나가야 한다

조 영 대 /
포항1대학 교수, 경영학 박사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개성을 추구하고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고, 여행의 패턴도 변하고 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국제 관광객수가 연평균 4% 이상씩 성장하여 2010년에는 10억5천만명, 2020년에는 16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동아 · 태 지역은 역내 교류와 세계경제 비중의 증가로 국제 관광객수가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관광은 기존의 단순한 여행형태에서 탈피하여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선 · 후진국 모두 문화를 수출하기 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상품화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세계화 · 정보화로 인하여 관광홍보 및 예약시스템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새로운 관광업종도 탄생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관광형태의 다양화로 문화관광, 이벤트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등의 급증이 전망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추세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관광형태가 육지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등 해양 생태관광 중심으로 변해 간다는 점이며, 오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비중이 31.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지닌 포항지역의 해양관광 현주소는 어떠한가 ?

아직도 여름 한철의 해수욕이나, 바다낚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화관광 수요처인 경주권과 울릉도의 진입로에 인접해 있고, 항만 · 공항 등을 갖추고 있는 지리적 이점조차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포항은 문화관광부의 「7대 문화관광권 개발계획」에서 산업관광코스 개발사업만 해당되어 있다. 하지만, 포항의 산업관광 자원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룩한 심장부 포스코가 있을 뿐이고, 첨단과학도시로의 도약을 이끌고 있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정도다. 사실 진정한 포항의 관광자원은 10여개 달하는 온천과 해수탕 등의 온천휴양 관광자원과 110㎞에 이르는 해안선 절경, 대형 공원, 박물관, 전시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 유서깊은 사찰, 삶이 풋풋하게 느껴지는 죽도시장 등이 바로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관광자원들이다. 한번쯤 외국여행을 아니 국내여행이라도 다녀온 분들이라면 그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바로 관광상품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웃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터전이 바로 훌륭한 관광상품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은 삭막한 철강도시 이미지에서, 첨단과학이 숨쉬는 도시로, 휴식과 삶이 어우러진 활기찬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포항을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첫번째는, 포항시가 보유한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관광수요는 해양 자원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스포츠 · 레저관광, 크루즈 관광, 어촌체험관광, 생태학습관광 등 다양한 관광패턴으로 변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전국 연안을 10개 해양관광권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해, 해양관광시설 확충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1세기 해양시대에 걸맞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어촌 · 어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는 동시에,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장 축소, 어자원 감소,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촌 · 어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요소, 생동하는 삶의 현장 등 잠재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도시인의 취미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을 것이다. 향후, 실질적인 체험관광을 위해서는 어선에 동승하여 고기를 잡아보는 어로체험 프로그램, 어구를 손질하는 어구수리 프로그램, 어획판매 프로그램, 공동어장개발 및 수확 프로그램, 어획물 가공 프로그램, 관광항로 개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어촌의 특성에 맞게 개발 · 운영 ·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 문화는 핵심의 실체보다는 의미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지 창출은 문화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포항은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이미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문화축제를 통해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문화를 브랜드화해 나가야 한다. 10여개의 지역 축제에 관광객을 흡입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지역내의 다른 관광자원을 연계시킨 차별화된 관광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축제기간에 지역축제와 관광자원들을 연계시킨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 · 운영하여 지역축제를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3~4개의 과메기 축제는 축제의 주제가 부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축제기간을 연속 운영하며, 축제기간에는 횟집들의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연장하며, 야간 이용객은 식음료 가격을 10%씩 할인하는 등, 도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주민의 참여와 관광객 유치가 가능토록 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활동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해양관광시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쪽빛같이 맑고 아름다운 바다, 하얀 선체를 자랑하며 줄지어 정박해 있는 어촌풍경, 이를 따라갈 관광자원이 또 있겠는가 ?

그렇다면, 해양관광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적조방지를 위한 오염제어와 영일만내 어장정리, 110㎞에 달하는 영일만을 끼고 도는 해안선도 잘 가꾸면 너무나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해안도로를 설계할 때도 모래유실이나 자연경관 훼손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바로 바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 덧붙인다면, 포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55%, 농 · 어업 29%, 광 · 공업 16% 순이다.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도약에 어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

포항이 '생명공학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 연구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상업화 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가(혹은 사업팀), 그리고 벤처캐피탈이 있어야 한다

채치범 / 포항공대 교수
생명공학연구센터 소장

최근 포항시는 하이테크 철강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 육성을 포항발전의 4대 성장엔진으로 정하였다.

그중 첨단과학도시 육성 방안으로 포항공과대학교와 RIST의 인프라와 우수 연구인력을 활용하고,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공대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포항방사광가속기,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중요한 기반요소로 정하였다. 따라서, 위의 주요 기반요소 가운데 하나인 생명공학 발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생명공학(BT, Biotechnology)은 21세기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이다.

생명공학은 연평균 20%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이면 2천억불의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IT에 이어 21세기의 경제발전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BT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BT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포항시가 BT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BT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BT는 지적산업으로서 생명현상의 새로운 발견이나 원천적인 기술개발이 곧바로 공학으로 응용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 될 경우 이는 곧바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규명, 진단, 치료방법 및 신약 개발의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의 발견은 그램당 몇천불에서 몇십만불의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개발되며, 년 조단위의 시장을 창출한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성공은 새로운 발견을 하는 우수 연구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좌우되며, 유명한 대학주변에 벤처기업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신약개발은 10여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성공율이 매우 낮은 관계로 흔히들 'High Risk, High Return' 산업이라고도 한다.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가 수도꼭지에서 계속해서 흘러 나와야 한다. 따라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업체들은 평균 25% 이상의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 IT산업과 달리 대박을 터뜨리는 물질 하나를 개발하면 적어도 20년간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바이오 산업은 제품을 조립하는 성격의 산업이 아니고, 생명체에서 발견된 물질(인슐린같은 호르몬), 합성된 화학물질(약), 새로운 유전자 도입을 통하여 형질이 변환된 생물체,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혹은 세포 등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유형, 무형의 연구산물이 제품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 연구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확립 되어야 한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상업화 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가(혹은 사업팀), 그리고 벤처캐피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몇몇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Califomia주에는 약 500개의 바이오 벤처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로 유명한 대학이 몰려있는 San Francisco지역과 San Diego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4분의 1이 대학의 연구자에 의해서 창업되었으며, 5만5천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평균연봉이 6만불이다.그리고, 미국의 North Carolina주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가 있는 Chapel Hill, Duke University가 있는 Durham, NC State University가 있는 Raleigh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에 Research Triangle Park이라는 테크노파크가 이미 1970년대에 만들어 졌고, 이 안에 주정부가 North Carolina Biotech Center를 설립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연계, 연구를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 20년내에 100여개의 바이오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설립하였고, 2만명의 고용창출과 18억불의 매출을 이끌어 냈다. 일본의 고베시도 최근 의학 및 의공학을 시의 주요발전 엔진으로 정하였고, 의학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는 대전, 광주 및 오성단지를 들 수 있다. 포항이 BT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상태에서는 포항이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있다. 포항공대의 바이오 분야는 한국에서 제일 우수한 연구집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의 상위권 주립대학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미국대학이 대부분 수백명의 바이오 관련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포항은 무척 빈약하다. 현재 약 30명의 생물관련 교수가 포항공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에 공동연구 혹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의학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의대 혹은 병원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로부터 연구물질, 임상실험 등을 도움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생명공학은 지적산업이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지역에서 학사, 석사, 박사자격을 가진 많은 연구원들을 유치해야 한다.최근 한국의 여러 대학의 수준이 올라가고,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설립되고 있어 연구인력을 포항으로 유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다행히도, 대학에서 연구원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당분간 연구원을 포항에 유치할 수 있으나, 연구원 숙소도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생각된다. 포항공대와 포스코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4천여평의 생명공학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의 BT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포항지역의 BT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최근 포항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수 연구인력 및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환경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자녀교육의 환경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의 강화와 벤처케피탈의 지속적 조성, 국제경험을 갖춘 사업전문가의 유치, 우수 의료시설의 확보 등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과 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첨단과학도시 포항이 생명공학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수 연구자와 우수 바이오기업의 유치 등에 포항시와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테크노파크가 같은 공동체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6년의 향토사랑
'고인돌 박사' 황인 씨

포항을 떠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푸른 동해바다, 영일만이 너무 좋았고,

지역 향토사랑에 너무 정이 들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떠날 수 없었다고

깊은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털어놓는 그는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다

옛날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고인돌이나 선돌을 찾아 오늘도 지역의 황량한 들판과 산, 계곡을 누비며, 남다른 향토사랑으로 포항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진정한 포항인이 있다. 바로 지역의 향토사 연구에 30여년의 인생을 바쳐 오고 있는 향토 사학가 황인(54세)씨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그는 1977년에 이곳 포항의 동해중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게 되면서부터 우리 포항과 첫 인연을 맺게 됐고, 그때부터 지역의 향토사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포항사람 다 되었다"며 빙긋이 웃는 그의 모습에는 시골 농부와 같이 소탈함과 넉넉함이 배어나고, 푸근한 인정이 엿보이기도 했다. 포항을 떠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푸른 동해바다, 영일만이 너무 좋았고, 지역 향토사랑에 너무 정이 들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떠날 수 없었다고 깊은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털어놓는 그는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다.

4년전부터 포항정보여자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리키며 교편을 잡고 있는 그의 향토사랑에는 끝이 없고, 그의 지역 문화사랑은 정말 각별하다. 그의 26년 향토사랑 이야기는 소설책 몇 권을 채우고도 남는다. 옛 조상들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훼손된 고인돌을 보면 가슴아파 한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몇년 안가서 지역의 고인돌이 모두 사라질까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발견된 유물은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의 전공은 고대사다. 그는 선사시대 문화유적, 특히 청동기시대 문화를 알 수 있는 고인돌과 선돌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인돌 박사'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흥해읍 칠포리 암각화나 연일읍 인비리 등의 암각화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포항지역에 부족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주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일에도 방과후에는 가까운 지역의 유적들을 찾아 답사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방학때면 하루종일 걸어서 고인돌과 지역의 유적들을 찾아 돌아 다닌다. 포항지역의 계곡이나, 산골짝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그는 소홀한 가정 생활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내조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부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한다.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일은 그야 말로 미쳐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는 "항상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항상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

황인씨는 영일군사, 포항시사, 성곽과 봉수, 경북마을지 등의 편찬에도 여러차례 참여하여 지역 향토사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손바닥을 보듯 훤하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일을 혼자서 묵묵히 해오고 있는 그가 탁본해서 소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60여점이나 된다. 특히, 동해면 발산리 바닷가에 흥선대원군의 친형인 흥인군 이최응의 공적비 외에 2기의 비석을 발견하고 비각을 세워 보존하게 된 것도 그의 노력이 일구어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동해정보여고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적과 향토사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우리지역에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줘야 애향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부터 매년 6월 6일이면 학생들을 이끌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장기면의 뇌성산에서 마을사람들로부터 간첩으로 오인을 받은 적도 있다는 그는 지금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흐름한 잠바하나 걸치고 탁본 도구와 카메라 등을 준비해서 향토 문화유적을 찾아 산과 들, 골짜기를 돌아 다니며 향토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요즘 26년의 향토사 연구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향토의 문화지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이곳 저곳을 빠짐없이 다니면서 무심코 지나친 유물은 없는지 재확인하고 있는 중이란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돌, 나무, 풀 하나에도 그는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혼이 박혀 있는 나무나 돌, 풀 하나라도 보존해야 된다는게 그의 지론.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유물과 고인돌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선조들이 남기고 간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은 더 이상 그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답사, 26년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앞으로도 답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답사를 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타고난 근성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역사회로부터 그의 남다른 향토사랑을 인정받아 삼일문화대상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일, 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향토사 연구와 향토사랑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해학 장승에 혼을 불어넣는
'장승 조각가' 박훈포 씨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 박훈포씨, 그는 끌과 망치에 인생을 걸고, 가장 한국적인 삶과 전통을 담아내고 있다. 장승에 남달리 애착을 가지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애써 오고 있는 박훈포씨의 장승사랑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의 15년의 길지 않은 경력치곤 정말 화려하다. 서민적이고 구수한 맛을 내는 숙성된 막걸리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는 서예가로, 서각가로, 그리고 장승조각가로 끊임없이 변신하며, 발전해 왔다

옛날 마을 어귀에 세워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장승들. 잡귀를 쫓고 이정표 역할을 했었던 그 장승들이 지난 70~8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미신이라 여기고 대부분 철거해 지금은 보기가 어렵다.

귀신과 병을 쫓아내던 장승, 우직하고 무뚝뚝한 모습의 장승이 옛날 우리조상들의 결속을 다지고, 무병장수와 풍요를 기원해 왔다. 장승은 민속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이며,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기도 하다. 현대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장승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포항인이 있다. 바로 장승조각가 박훈포(42세)씨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 박훈포씨, 그는 끌과 망치에 인생을 걸고, 가장 한국적인 삶과 전통을 담아내고 있다. 장승에 남달리 애착을 가지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애써 오고 있는 박훈포씨의 장승사랑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의 15년의 길지 않은 경력치곤 정말 화려하다. 서민적이고 구수한 맛을 내는 숙성된 막걸리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는 서예가로, 서각가로, 그리고 장승조각가로 끊임없이 변신하며, 발전해 왔다. 10여년전 지리산 백송사에 절과 민간지역의 경계표시로 세워져 세월속에 바래진 장승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장승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박훈포씨, 그는 서각의 대가이기도 하다. 북구 청하면 고현리에 장승촌이 있다. 8천여평 정도의 임야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박훈포씨가 장승에 혼을 불어넣고 있는 곳이다. 부리부리한 눈, 두리뭉실한 코, 우직하고 무뚝뚝한 장승, 그러나 무병장수와 풍요를 기원했던 장승이다. 죽은 나무에 예리한 끌과 망치로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박훈포씨의 작업 광경을 지켜보면 저절로 숙연해 진다. 항상 작업전에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작업을 시작한다. 덩그러이 죽은 나무에다 그의 손이 몇번 스치고 지나가면 금새 속살이 하얗게 드러나고, 두리뭉실한 코와 부리부리한 눈을 만들고 나면, 드디어 해학적인 장승으로 다시 생겨나게 된다. 작은 돌에도 조각하여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러한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박훈포씨는 자연을 거스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다 전통적인 얼굴로 장승을 깍아 완성하고 나면 마음이 새롭다고 한다. 자연을 신앙으로, 자연을 모태로, 서민의 얼굴을 한 해학적인 장승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을 재현하고 있는 그의 이마에는 오늘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다.

어린시절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장승은 잡귀를 쫓기도 하고, 마을 이정표 역할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친근한 모습으로 해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이 배제된 현대가 있을 수 없다. 그는 사라져간 장승을 복원하여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새로운 장승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1970년대까지도 천곡사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장승을 복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무섭지만 단청을 했고, 얼굴형상이 특이했던 이 장승의 복원에 남달리 애착을 보이고 있다. 몇십년전의 장승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일이 매우 어렵지만, 사진과 자료를 수집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고증을 거쳤다.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라 한다. 호미곶 해맞이광장에는 그가 만들어 세운 장승 30여기가 세워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앞으로 이곳을 장승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기도 하다. 지난 99년에 제1회 영일만 장승제를 사비를 들여 개최한 적도 있을 정도로 장승에 애착이 무척 강하다. 그 이후 현대예술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져 중단되었는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올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때는 '포항 호미곶 해맞이'를 새겨넣은 대한민국 지도모양의 호랑이 목판본인 '근역강산맹호도'를 제작하여 호미곶을 찾는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어 포항을 알리고, 호미곶을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장승을 만드는 일은 자연을 그스러지 않은 작업이다. 여기에는 우리네 조상들의 소박한 삶이 담겨져 있다. 우리 서민들의 얼굴이며, 할머니의 얼굴이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무와 돌에 자연스럽게 서민의 얼굴을 그려내어 해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내는 그는 "장승조각은 전통을 재현하고 전통문화를 고취시키는 일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박씨지만 이 곳 포항의 문화예술 사랑은 이 지역 문화예술인 못지 않다. 5년 전부터 포항에 문화를 남기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왔다. 조각물, 예술품, 이 모든 것이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다. 그는 끌과 망치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나무로 깍은 장승은 그 수명이 10~15년이면 수명을 다한다. 앞으로는 돌을 깍아서 세우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지역의 작가나 예술인은 포항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그는 앞으로 3천평 정도의 장승문화촌을 만들어 지역의 명소로 꾸며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포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므로, 밑거름을 놓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포항지역에 장승문화가 어느정도 자리잡히면 장승학교를 열어 보겠다는 그는 호탈한 성품을 내비치기라도 하듯 너털웃음을 짓는다.

동해바다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재배되는
포항의 대표적인 특산물 '곡강 시금치'

우리 포항지역의 특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곡강 시금치'다. 우리 포항지역에서 겨울철에 생산되는 시금치는 풍부한 일조량과 최저온도가 높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인기가 높은 포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포항지역에서는 조선초부터 시금치가 재배되어 왔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포항의 시금치는 총 150여 ha에 연간 2천4백여톤이 생산되고, 이 중에서도 흥해지역에서 1백여 ha에 연간 1천7백여톤을 생산되어 전체 생산량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흥해지역에서는 곡강, 흥안, 용한 등 주로 해안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곡강리에서만 69ha를 재배하고 있어 흔히 '곡강 시금치'라 부른다. '곡강 시금치'는 풍부한 일조량과 최저온도가 높은 기후조건, 배수가 잘 되는 해안의 사질토양에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어 향이 짙고 색상이 선명하다.

'곡강 시금치'는 10년전인 지난 1993년에 시금치로서는 최초로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 유통센터로 고정 출하되고 있으며, 지난 1998년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우수 농산물 생산단지 제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국 최대 생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특산물 '곡강 시금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 더욱 푸른 빛을 띄면서 본격적으로 수확하여 출하되며 봄까지 계속된다. 특히, 노지 재배를 하는 '곡강 시금치'는 시금치로서는 처음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정도로 향이 독특하고 당도가 높다. 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곡강2리의 '곡강 시금치 작목반(반장 이등질)'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확을 한다. 한 단 한 단 정성들여 묶고, 상자포장 작업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하루에 작업하는 물량은 한 단 3백그램씩 5천속 정도. 모든 물량이 그날그날 전국으로 팔려 나갈 정도다. 서울 가락시장과 이마트에서 '곡강 시금치'는 일반 시금치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곡강 시금치가 지역에서보다 대도시에서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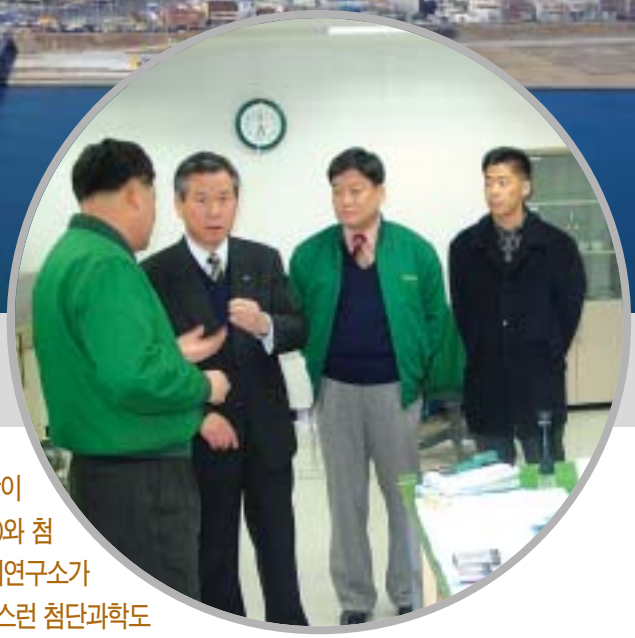
'곡강 시금치'는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데, 그 것은 지역 특성상 기후조건이 좋고, 사질 양토라 기름기가 다른 곳보다 많고, 타지역 시금치보다 단맛과 향이 구수하며, 미네랄과 철분, 칼슘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해문제와 환경호르몬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무농약 유기재배 채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곡강시금치'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무농약 유기재배 시금치 재배를 시도해 왔고, 지난 93년에 시금치로서는 처음으로 품질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곡강 시금치'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인기도 동반 급상승하게 됐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다른 농산물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

품질인증은 곧 상품의 차별화 전략과도 같으며, 생산지의 토양 등 여러 가지 기준의 까다로운 검사와 확인을 거쳐 인증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까다로운 검사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정성이 몇 배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소비자들은 그렇게 차별화된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인다.

'곡강 시금치'는 친환경인증 분야에서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아 품질 좋고 환경공해 없는 우수한 상품으로 인기와 명성이 높은 상태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검사와 확인,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곡강 시금치'가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밥상에 먹거리로 오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올해 포항시의 시정구호는「제2의 영일만 기적 ! 첨단과학도시 포항이 이룩하겠습니다」이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기업 POSCO와 첨단 과학의 산실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있고,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있으며, 차세대 첨단산업의 핵심 원동력이 될 포항테크노파크가 있는 자랑스런 첨단과학도시다. 이 시정 구호에는 포항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포항인으로서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4대 성장엔진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항인의 힘찬 기상과 자신감,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포항시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시정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갈 것을 천명하고, 먼저,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룩하기 위한 4대 성장엔진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30여년전 갈대 무성했던 황량한 영일만 갯벌위에 포항제철을 세워 영일만 기적을 이루었듯이, 앞으로 30년,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룩하여 포항의 밝고 푸른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하기 위하여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 성장엔진 산업은 무엇인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살펴 봄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포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Pohang City

▶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세계적인 철강도시 위상에 걸맞게 끊임없는 신기술, 신소재 개발로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수준높은 철강도시, 세계적인 기술 선진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오천읍 문덕리와 대송면 옥명리 일원에 오는 2005년 12월까지 1,547원을 들여 634천평 규모의 포항 4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고, 철강산업의 활력소를 제공하며, 5천여명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연간 1조5천억원의 직 · 간접 생산효과를 유발해 나가게 된다.

포항4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제반 법적절차를 모두 끝내고 오는 5월 첫삽을 들게 된다.

또한,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130억원을 들여 금속재료 기술혁신센터(TIC)를 포항공대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금속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과 개발된 기술을 육성 지원하며,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기술혁신과 고도화를 이룩해 오고 있다.

▶ 첨단과학 산업도시 육성

세계적 수준의 포항공대를 비롯하여 RIST,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가속기연구소, 나노기술 산업화지원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 아태이론물리센터 등의 우수 연구인력과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철강 일변도인 포항의 지역 산업구조를 다변화,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첨단과학 산업도시로의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백억원을 들여 4만2천여평의 포항테크노파크(일명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1백여개의 하이테크 또는 연구개발형 기업과 연구소를 입주시켜 첨단 신기술 연구와 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과학과 산업의 차세대 핵심 원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50여개의 벤처기업과 연구소들이 입주하여 기술 연구와 사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포항공대, RIST, 포항테크노파크로 이루어져 있는 58만여평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착실히 조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7월에 준공되는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 2006년까지 571억원이 투자되는 나노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으로 2005년까지 추진되는 풍력발전기 증설, 현재 15기에서 2008년까지 40기로 증설하는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 등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첨단과학도시로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 미래산업인 5T산업(IT, BT, NT, CT, ET)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육성하고, 아태이론물리센터의 기초이론에서 연구소의 기술개발과 첨단제품 생산에 이르는 순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영일만 신항 건설,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의 조기 완공과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아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금융이 집적되는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영일만 신항은 2011년까지 1조7천277억원 이 투자되며, 최대 3만톤급 16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하게 된다. 영일만 신항이 완공되면 연간 1천4백만톤의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소화해 내는 대형 항만으로 우리 포항의 자랑이 될 것이며, 포항이 명실상부한 해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를 1백80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아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제품 생산과 외국기업을 유치해 나가게 된다. 이 뿐만아니라, 오는 2004년까지 건설이 완료되는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기본설계 중에 있는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2014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포항-삼척간의 동해 중부선 철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포항-익산간 고속도로(계획중) 건설 등의 대형 SOC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국토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도로 ·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화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여 포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비즈니스 물류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음시켜 나가겠다는 야심찬 전략의 하나이다.

▶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

국민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호미곶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110km의 해안선 그리고 푸른 동해바다를 해양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포항을 사계절 관광객이 모여드는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호미곶 국민 관광지에 2010년까지 해양박물관, 국민대화합관, 영일만 타워 등을 건립하여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POSCO, 포항공대, RIST,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등을 연계하여 첨단과학과 산업 · 연구시설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송라, 대보 등의 지역에 골프장 4개소를 건설하고, 연일, 환호, 내연산 3개소에 테마파크를, 두호항 지역에 마리나시설을 설치하며, 인근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연계하는 해상 크루즈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휴양 · 레저시설과 해양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포항을 국내 최고의 사계절 종합 레저타운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동시에, 매력이 넘치는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래 포항발전의 초석을 놓았던 시기, 민선2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민선3기 거함 '포항호'가 새로이 출범했다. 20~30년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 주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서..... 그동안 우리포항은 영일만 신화를 창조했던 철강산업의 기반위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제 포항은 철강도시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는 우리 포항을 세계적인 철강산업 기반위에 더한층 업그레이드된 하이테크 철강도시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그리고,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 미래 포항발전을 이끌어 갈 4대 성장엔진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하고, 환동해 경제권의 중추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그것은 포항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 30여년전 갈대 무성한 황량한 갯벌위에 영일만 기적을 일궈내며, 오늘날의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조국 근대화의 심장부 역할을 해 왔던, 자랑스런 우리 포항과 위대한 포항인들, 이제 포항인 특유의 강인한 포항정신으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일궈내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 소명이다. 하나로 결집된 시민역량이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먼저, 시민의 화합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 쇳물처럼,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 그리고, 포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메카로 우뚝설

생명공학연구센터

21세기 포항의 새로운 성장엔진인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또하나의 비전이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다. 우리나라 첨단 생명공학의 메카가 될 생명공학연구센터, 힘찬 비상(飛上)의 나래를 펴 또한번의 영일만 기적을 함께 일구어 가려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던 자랑스런 우리 포항은 첨단과학도시로 탈바꿈하여 10~20년후의 희망찬 포항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갔던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7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화려한 서막을 열기 위해 아름다운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 것이다. 연면적 4,282평 규모의 시설에 첨단기기와 장비들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생명공학을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생명공학의 본산이 될 것이다. 또한, 포항테크노파크와 함께 포항의 첨단과학과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원동력인 동시에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21세기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도시요, 첨단과학도시인 우리 포항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 있는 곳,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메카로 우뚝설 비전의 현장, "생명공학연구센터"를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 보았다.

Postech BioTech Center

■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란 ?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나 생체유래 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및 벼 게놈 프로젝트 등 각종 생물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생명공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전자 및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연구다. 암이나 심장질환에서 기존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약효가 개선된 신약 개발이 가능하며, 특정물질 생산을 담당하는 유전자나 단백질 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 사업 개요

생명공학연구센터(소장 채치범)는 포항공대의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생명공학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여 학교, 지역 나아가,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POSCO의 생명공학 산업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하여 설립된 포항공대 부설 연구소이다.

▷총 3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건물 건립 공사비에만 233억원이 들어가고, 공동기기를 도입하는데 110억원이 들어간다. 센터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포항공대 분자생명과학부 채치범 교수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141명 정도. 그러나, 향후 교수 29명, 연구원 405명, 행정지원 인력 7명 등 440여명의 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지만,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교육하며, 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유전자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연구에 집중하여 분자의약, 식물 바이오텍, 나노 바이오텍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립,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추진 현황

그동안 포항공대에서는 포항을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공대내에 23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4층, 지하1층에 연면적 4,282평 규모인 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2000년 11월 생명공학연구센터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2001년 8월에 설계, 시공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에 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오는 7월말 생명공학연구센터 건물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공사에 여념이 없다. 지금까지 공정율은 40% 정도.

■ 사업성과

지난 2000년 센터 설립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간염 백신, 바이오 칩, 기능성 벼 품종 등의 개발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의 센터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만성간염의 예방과 치료백신을 개발중에 있고,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면역활성 펩타이드를 발견했으며, ▷고감음성 유전자 칩을 개발하여 지난해 한국특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을 뿐만아니라, ▷벼의 기능 유전자를 대량 발굴하고, ▷벼의 기능 연구를 위한 돌연변이 종을 대량 확보하여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저당성 기능성 벼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자 의약에서는 생명 현상과 난치성 질병에 대한 분자 수준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와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암 관련 세포 신호전달, 신혈관 생성, 유전자 발현 조절 등에 관한 새로운 발견과 바이러스 면역 시스템의 조절인자와 단백질체 분석기술, 분자 다양성 기술들을 접합시켜 매우 효율적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연구중인 대표적인 단위과제로는, 포항공대 생명공학부 성영철 교수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류성호 교수와 채치범 교수(소장)가 공동으로 분자 다양성 기술을 이용한 신기능 펩타이드 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재운 교수가 전사 활성 조절인자 ASC-2 Complex 활성 조절을 통한 차세대 암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포스코의 혁신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연구중인 것들이다.

나노바이오텍(nanobiotech) 분야에서는 생물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수송하거나 유전자를 수선하는 등 일종의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 기구(biomachinery)들을 탐색하여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나노바이오 시스템을 발굴하며, 이러한 나노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화학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새로운 방법론을 생물학적 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생명 및 의료분야에서의 응용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과학적 사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구현된 시스템을 디바이스화, 기기화 및 상품화하는 것이 중점 목표다.

나노바이오칩, bio-MEMS(nanoelectromechanicalsystem), 나노바이오공장 등이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과제들이다. 나노바이오칩(nanobiochip)은 기존의 감도와 신뢰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바이오칩을, bio-MEMS에서는 의료진단, 치료용 초소형 장치 개발을, 나노바이오공장(nanobiofactory)에서는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초소형 분자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된 원천 고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다. 앞으로는 화학 · 생명공학(chemical biology), 나노약물 전달체, 단일 생물분자 공학 뿐아니라,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의 원천적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식물 생명공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식물의 산업적인 활용과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식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추구하는 연구방향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고등식물은 약 3만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에서 새로운 형질을 유도하거나 기존의 형질 개량에 필수적인 유전자를 확보,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형질을 가진 식물체를 개발해 나가게 된다. ▷두번째는, 식물세포를 고부가가치의 단백질 및 식물 2차 대사산물의 생산 공장화(bioreactor 또는 green factory)로의 활용 가능성의 탐색과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다. 이 두 개의 연구과제를 위하여 식물 시스템을 주된 대상으로 다양한 기초 및 응용 생명과학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기초 및 응용 연구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특허 및 산업화하고, 기존의 식물체를 개량하여 병충해, 환경의 재해에 저항성이 증진된 식물체나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체를 개발하여 산업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식물체를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나 심장질환 치료용 단백질 및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2차 대사산물을 식물체로부터 대량 생산토록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바이오 산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향후 계획

▷오는 7월말에 센터 건립을 완공하고, ▷오는 8월까지 참여 연구원들의 입주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생명공학 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센터는 지상4층 건물에 연면적 4,282평 규모의 첨단 분석기기들을 갖춘 연구실, 실험실, 공동기기실, 핵심기술실 등이 들어서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연구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연구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능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조기 사업화를 통해 재정 확보와 산업화에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

▷**초기단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기존의 우수 연구진과 연구실적을 적극 활용하고, 센터 건립 및 공동 연구기기 도입 등 인프라를 완비하면서, 중점 연구분야의 성과를 사업화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반연구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우수과제를 도출하고, 기술이전 전담 부서를 건립하여 라이센싱, 벤처보육 등을 담당토록 할 것이며, ▷**성장단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참여교수 및 연구인력을 증원하여 critical mass를 형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 연구분야를 재편성해서, 성과있는 기반연구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구를 강화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완성단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포항공대의 우수 교수와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 중점분야 연구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하여, 성공적인 벤처기업과 전문연구소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포스코라는 세계적 철강기업을 통해 영일만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지난 1986년 포항공대를 세울때만 해도 이 대학이 개교 10여년도 안돼 세계적 유수의 명문대로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2의 영일만 신화" 창조의 꿈을 안고, 출항한 "포항호"에 생명공학연구센터가 동승하여 속도를 더해 주리라 믿는다.

우리 포항에는 세계적 수준의 포항공대 생명공학 연구인력과 국내 최고수준의 생명공학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공대, RIST, 포스코,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등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구축돼 있다.

우리나라 생명공학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는 틀림없이 국내 생명공학 발전에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와 바이오 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포항을 첨단 생명공학 연구 · 산업도시로 만들어가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외국의 생명공학 선진도시라 불리우는 미국 워싱턴DC,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처럼, 영국의 캠브리지나 에딘버러처럼, 일본의 고베, 오사카 처럼…….

태백준령 서기어린 비학(飛鶴)의 고장
청정골 '신광(神光)'

한반도의 등줄기를 쉼없이 내달리던 백두대간의 끝자락 한가닥을 부여잡고, 태백준령의 서기를 모아 마지막으로 빚어낸 비학산(해발 762m).

포항의 정기가 뻗쳐 나온 천하 제일의 명당이다.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비학산, 광활하게 펼쳐진 신광벌, 끊임없이 흘러 내리는 용암천이 동해바다를 이루며,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비학의 고장, 청정골 "신광(神光)".

비학의 기상으로 신광벌에 자리잡은 신묘한 빛의 고장 신광은 태백산 줄기의 종단부에 해발 762m의 비학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타원형 분지를 이루고 있는 물 맑고 살기 좋은 전원농촌 마을이다.

신광은 신라초기에 동잉음현(東仍音縣)이 되면서부터 조선시대말까지 현(縣)으로 존재했다. 행정구역은 수시로 바뀌어 왔지만, 그래도 다른 구역에 통합되지 않고, 속과 귀속으로 있다가 신라 경덕왕 16년에 신광현, 고려 현종때는 경주부에 속현으로 이속되어 있다가 조선시대말에 와서 흥해군 신광면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영일군에 속해 있다가 1995년에 포항시 북구에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광은 비학산 아래에 작은 들판이 있고 이곳에 신라시대 때부터 작은 토성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수시로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한다. 지리적으로 신광은 신라의 수도 경주로 진입하는 왜구의 통로가 되어 있었다. 이 곳에서 왜구가 출몰한 것을 역사적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물왕 18년 경주 금성을 포위하여 5일간 공격하였는데 도저히 몰아낼 방법이 없어 신광 토성으로 유인하여 대파했고, 실성왕 4년, 눌지왕 28년, 자비왕 2년 등 수시로 침입한 왜구를 이곳에서 섬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금의 신광면 소재지인 토성리에는 아직도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일부 농가의 울타리와 담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197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가정집을 개축해 토성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 왔다.

신광은 포항시내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데, 영덕방면으로 7번국도를 이용하여 10여분 정도 가다보면 흥해읍이 나온다. 이곳 흥해읍에서 신광방면 이정표를 확인한 후 2차선 지방도를 따라 15분 정도

가면 신광이 나온다. 신광면에 입구에는 지난 1994년 12월에 재포신광향우회에서 세워놓은 애향시비가 이곳을 찾는 이를 가장 먼저 반겨준다. 오른쪽으로는 용연지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고, 용연지 옆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13개 정도의 매운탕 전문음식점들이 좌우에 자리잡고 다양한 먹거리를 자랑하며, 이곳을 찾는 이의 발길을 끈다. 용연지를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신광벌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쯤에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포항의 정기가 뻗쳐 나왔다는 비학산의 웅장한 자태를 지켜보는 이는 탄성을 금하기 어렵다. 비학산 자락에는 신라 진평왕 때 세워져 신라인의 혼이 깃들어 있었던 천년고찰 법광사의 웅혼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옛 법광사 터의 흔적만이 남아 옛 천년 고찰의 웅장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문화재의 보고이기도 한 신광(神光)에는 현존 최고의 신라비인 국보 제264호 영일 냉수리 신라비를 비롯해 경상북도 기념물 제20호인 법광사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57호인 우각 향나무, 경상북도 기념물 제95호인 냉수리 고분 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지역 어디서나 신라의 전설과 역사가 배어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특히, 신광에는 제26대 진평왕의 위폐를 봉안한 사당 숭안전이 있고, 죽성1리 마을앞 숲에는 매년 3월이면 한해도 거르지 않고 1천여수의 학무리가 날아와서 서식하는 '학 군락지'가 있으며, 이 고장의 최고 자랑거리이기도 한 면민축구대회는 매년 광복기념으로 열어오고 있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58주년 광복절을 전후하여 제5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신광면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광활한 호수인양 시원스럽게 펼쳐진 용연지(범촌못, 호리못이라고도 함)가 나타난다. 이 대형 저수지 주변에는 13개소 매운탕 전문음식점이 운집해 있어 지난 1997년 8월에 '민물매운탕 전문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온천지구로 지정된 만석리 일대는 온천휴양시설이 한창 개발되고 있는데,

신광원탕이나, 비학산원천테마랜드 등 몇 곳은 벌써 성업중이다. 신광(神光)은 특이한 지명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신라 제26대 진평왕이 법광사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었을때, 그 날밤 비학산에서 밝은 빛 한줄기가 찬란하게 뻗쳐 나오는 것을 왕이 보고, 신령스러운 빛이 나오니, 이 지역을 신광(神光)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여 귀신 神 자에 빛 光 자를 넣어 신광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를 간직하고 있다.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한 비학산은 중생대 때 포항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화산이 터져 우뚝 솟아난 지역으로 지구의 물성작용으로 마치 학이 날아가는 형태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오랫동안 포항지역의 진산(鎭山)으로 여겨 왔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예로부터 하늘을 쳐다보며 농사를 짓고 오직 땅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살아 왔다. 농민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군가 남몰래 비학산에 묘를 써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묘를 파헤쳐 송사가 생기기도 했다 한다.

한때 주민수가 2천여세대에, 1만3천여명이 넘을 정도로 큰 고장이었던 신광면은 1966년 이후 줄곧 줄어들어 지금은 22개 마을, 1천6백여세대에 4천4백여명 정도의 작은 고을이 되었다. 청정골 신광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학산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고, 모든 것을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전원농촌마을 청정골 신광은 이제 더 이상 비학산에 의존하지 않고, 넓디 넓은 신광벌이 안겨준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신광은 용연지(호리못, 범촌못)를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매운탕 전문단지와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각종 문화재와 비학산 등 지역에 산재한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광온천지구의 온천자원을 지속 개발하여 위락시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동해의 여명받아 힘차게 날아 오르는 비학의 고장 신광은 21세기 포항사람들의 꿈의 안식처요, 포항지역의 대표적인 전원도시로 자리잡아 나가기 위해 제2의 힘찬 도약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뇌성산(磊城山) 매새 이야기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와 장기면 모포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높이 213m 뇌성산(磊城山)은 봉화산(峯火山) 또는 칠보산(七寶山)이라고 하며, 그다지 높지도 않고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서, 이 곳 해변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장기면 영암리에서 모포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망재)에서 보면 바닷가까지 뻗어나와 있는 이 뇌성산을 더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모포리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바로 아래에는 바닷가에 대진리가 있고, 그 너머에, 모포리 칠전마을 뒷산이 보이는데, 바로 이 산이 뇌성산(磊城山)이다.

이 산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봉수대가 있고, 고려현종때 쌓았다는 석성인 뇌성산성(磊城山城)이 있다. 특히 이 산에서 뇌록(磊綠), 인삼(人蔘), 자지(紫芝), 오송(蜈頸), 봉밀(蜂蜜), 치달(雉獺), 동철(銅鐵) 등 7가지 보물이 나와 나라에 진상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칠보산(七寶山)이라 불리워 지기도 한 것이 아닐까 ? 그리고, 이 산에 옻나무가 많아 칠전(漆田)이라는 마을이 산기슭에 생겨나기도 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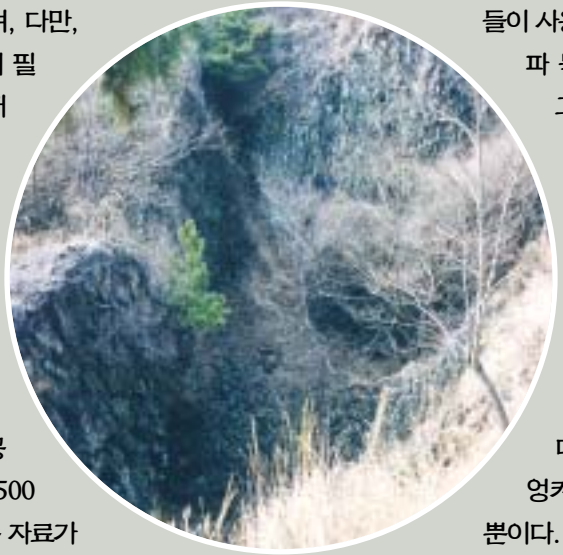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이 뇌성산에서 나는 매새, 즉, 뇌록(磊綠)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나라에서 짓는 궁궐이나 대형 건축공사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하고도 귀한 재료였다. 뇌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곳 장기면 뇌성산 자락에서 생산된 것으로 여러 고문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곳에는 바위 틈새 여러군데에서 새파란 줄무늬로 장식한 뇌록의 진면목을 선명하고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의 흥미를 돋구어 주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이 뇌성산 인근 마을 주민들은 뇌록을 매새라 부른다. 뇌록의 빛깔은 회록색(灰綠色)으로 어린 쑥이 올라올 때의 빛깔보다 조금 진한색을 띠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청색과 황색을 섞은 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건축의 단청을 살펴보면 중국과도 다른 고유한 색조를 띄고 있어 신비로움을 금할 수 없다.

매새 즉, 뇌록은 전통 단청의 기본 안료로 녹색의 바탕칠(가칠)을 하는 재료인데, 오늘날의 사찰이나 정자 등 고건축에는 화학안료를 사용하여 가칠하고 있으나, 과거 전통 장인들은 뇌록 조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불려 아교를 가미하여 칠했다 한다.

옛날 이 곳 장기면 뇌성산의 뇌록(磊綠)은 조선시대에 그 효용가치가 매우 컸던 전국적인 특산품이었던 것 같다. 뇌록은 조선초기부터(세종실록지리지(1432)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각 장기현 북쪽 12리 천을이산과 북쪽 19리의 뇌성산에서 나는 토산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오래전부터 이름나 있었던

오늘날까지도 이 뇌성산 인근 마을 주민들은 뇌록을 매새라 부른다.
뇌록의 빛깔은 회록색(灰綠色)으로 어린 쑥이 올라올 때의 빛깔보다
조금 진한색을 띠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청색과 황색을 섞은 색이라 할 수 있다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뇌록 생산지(址)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채굴하고 파인 굴의 깊이가 수직갱으로 매우 깊어서 명주실 꾸러미 서너개를 풀어 넣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그 깊이가 매우 깊었다 한다. 또한, 뇌록을 채굴하던 곳을 '매세 구디이' 또는 '쉰구디이'라고 하는데, '쉰구디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서 채굴하던 인부들이 사고로 많이 매몰되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가 보왔더니 그곳에서 대로 만든 옛 도시락통(초배기)이 50여개가 나왔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곳을 쉰명이 죽은 구덩이라 하여 쉰구디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채굴에 종사했다는 이야기는 전하는 것이 없으며, 다만, 진공품으로 나라에 진상할 때나 단청이 필요할 때 경상도 감영의 명으로 때때로 채굴했었던 것 같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1805년(순조 5년) 인정전영건도감의궤(창덕궁 인정전 공사기록)의 갑자 2월 경상감영에 보내는 공문에 뇌록 20두(斗)를 장기현에서 조달할 것을 명하였다는 것과 1830년(순조 30년) 서궐건영도감의궤(경희궁 내전을 짓는 공사기록)의 경인 3월 경상감영에 뇌록 500두를 장기현에 조달할 것을 명령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다. 마을 주민들은 광복후에도 이 뇌록 생산지에 소먹이 하러 가서 뇌록을 주워 물에 녹여 주먹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상인들이 사가지고 갔다고 한다.

지난 1996년 1월 관계 전문가가 과거 뇌록 채취장소로 전해지는 뇌성산의 유물을 답사한 적이 있다 한다.

이 때 이들은 현지에서 유적을 확인하고 100그램의 뇌록 조각을 가지고 가서 가루로 만들어 전통 장인들이 하던 방식을 본받아 아교를 가미하여 칠을 해 보았는데, 조상들이 고건축에 사용했던 가칠(단청칠을 할 때 가장 먼저하는 녹색의 바탕칠)과 거의 흡사한 색채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과 달리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자연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했고, 자연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했던 슬기를 지녔다. 지금 이 곳에는 옛날 전통 장인들이 사용하던 단청 안료인 뇌록 채취를 위하여 파 놓은 큰 웅덩이 2~3곳과 굴착한 굴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산품으로 생산해 내던 뇌록의 생산지는 그 옛날의 영화를 흔적으로만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땀흘려 가며 뇌록을 채취하던 모습이, 그 땀냄새가 코 끝에 묻어나는 그 생생한 유적지가 세월의 무상함 앞에 무릎을 꿇고, 다만, 우거진 잡목과 칡덩굴이 서로 뒤엉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그러나, 이 곳이 멀지않아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학생들의 훌륭한 교육장으로 활용될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포항정신의 횃불 밝힌 지역의 3·1운동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봄소식과 함께 해마다 3월이 되면 1919년 일제의 압제사슬에서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자 남녀노소, 직업,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3 · 1운동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된다. 비록 자주 독립의 큰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3 · 1운동은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우리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대다수 포항사람들은 '3 · 1운동'이 우리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고장에서도 여러차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우리 포항지역에서 힘차게 메아리쳤던 3 · 1운동의 만세소리를 다시한번 들어보자.

우리지역에서 가장 격렬했던 3 · 1만세운동은 아마도, 오늘날 포항제일교회(옛 포항교회) 교인들과 영흥초등학교(옛 영흥학교) 교사들이 주도했던 포항장터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과 송라면 대전리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청하면과 송라면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들 수 있다.

포항장터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포항제일교회 장로 송문수의 연락으로 영흥학교 교감이었던 장로 최경성과 집사 이봉학, 교인 이기춘, 영흥학교 교사였던 장운환 등이 비밀히 회합을 가져 제반 준비를 하고, 1919년 3월 11일 포항장날(1일, 6일)을 기해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거행하기로 준비했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인쇄물(독립선언서와 독립만세)을 전부 압수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사실이 시내에 알려져 포항지역의 만세운동에 도화선이 되었다.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장터(여천시장)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붙이며 시위를 했는데, 이것이 포항지역 3 · 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날 밤에는 북본동 교회 신도 수백명이 교회에 모였다가 시가로 나와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의 제지로 해산하였고 浦項 각 동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많은 洞民들이 만세를 부르다가 영흥학교(永興學校) 서편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합세하여 천여명이 되었다.

포항장터의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된 당시 영흥학교 교감이었던 최경성(崔景成)은 8개월을, 포항제일교회 장로였던 송문수(宋文壽)는 6개월을, 그리고, 집사였던 이봉학(李鳳鶴)이 5개월, 교인 이기춘(李起春)이 5개월, 영흥학교 교사였던 장운환(張雲煥)이 4개월의 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어 복역했다.

또한, 3월 22일 청하면 장터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송라면 대전리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3 · 1운동이 요

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고 있을 무렵, 이 마을 대전교회의 신자이던 윤영복과 오용간, 윤영만 등은 교회당과 오용간의 집에서 밀회를 거듭하면서 거사를 의논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3월 22일 청하장날에 거사키로 했다. 거사 당일인 3월 22일 윤영만은 청하시장으로 향하다가 일경의 불시검문에 체포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태극기를 몰래 감추고 청하 덕성리 청하장터에 모였다. 1시반쯤 윤영복은 큰 태극기를, 오용간과 다른 동지들은 작은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장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들이 합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쳐 청하면 일대가 진동했다.

대전리 주민들은 다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태극기 제작에 들어갔으며, 교회당과 그 이웃 초가집 두 칸을 주요 모임 장소로 했다. 그리고, 5일후인 3월 27일 마을앞 두곡숲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후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윤영복은 1년 6개월을, 그외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씩 형을 살았으며,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옥사한 사람도 있다. 복역을 마치고 출옥한 사람들은 대전리를 중심으로 청년회를 조직해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정신을 불어 넣거나, 야학이나 물산장려운동, 일본인 교장추방 등의 항일운동을 계속했으며, 윤영복과 이준업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다 한다.송라면 대전리는 지금도 '3 · 1 만세촌' 또는 '만세마을'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마을 입구 두곡숲에는 지난 88년 3월 1일에 세운 3 · 1운동기념비가 있으며, 지난 2001년에 3 · 1만세운동 기념관도 그 역사의 현장에 세워졌다. 또한, 당시 주동자들이 은밀히 모이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을 뿐만아니라, 마을사람들을 구심체가 되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포항지역에서는, 4월 1일에 연일읍내에서 수백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고, 이날 밤에는 동해에서 수백명이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오천, 대송, 연일 등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만세운동이 확산되어 그칠 줄을 몰랐다. 다음날인 4월 2일에는 기계면 뒷산에 봉화가 오르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죽장, 신광, 청하, 송라, 흥해 등으로 만세운동이 번져 나갔다.

당시 포항은 일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비상한 관심을 갖는 지역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일군경의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던 곳에서 3 · 1만세운동이 계속된 것은 포항인만의 강인한 독립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엄한 경계와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정정당당히 일제에 맞섰던 포항지역의 3 · 1운동은 포항과 포항인의 한을 풀 수 있었으며, 포항과 포항인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 浦項史의 횃불 이었으리라.

비학산 정기어린 신묘한 빛의 고을
인재들의 산실, '신광초등학교'

한반도 등줄기를 따라 쉼없이 내달리던 백두대간의 끝자락 한가닥을 부여잡고, 태백준령의 서기를 모아 마지막으로 빚어낸 비학산(해발 762m). 포항의 정기가 이곳에서 뻗쳐 나왔다고 했던가 ? 천하 제일의 명당이 아닌가 ! 병풍처럼 둘러선 비학산, 광활하게 펼쳐진 신광벌, 맑디 맑은 물 끊임없이 흘러 내리는 용암천,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이 절로 묻어나는 아름다운 청정골, "신광(神光)". 비학산 자락, 신광벌에 자리잡은 신묘한 빛의 고을 신광은 예로부터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고을이다. 예사롭지 않은 이 고장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움직여 왔던 숱한 인재들을 배출해 낸 요람이 있다. 바로 74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신광초등학교(교장 류병하 · 제24대)다.

신광초등학교가 위치한 신광면 토성리는 신라시대에 토성이 있었던 곳이며, 요즘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신광초등은 74년동안 포항지역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정 · 관 · 재 ·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해 내면서, 초등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아 왔다. 신광초등학교를 들어서면 유구한 역사를 말해주듯 교정 좌우에 아름드리 소나무 몇그루가 자리잡고 있다.

신광초등학교는 1928년 3월 3일부로 신광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9월 16일에 개교했다. 올해 2월 20일 제72회 졸업생까지 총 8,534명의 졸업생을 길러내며, 74년의 긴긴 세월동안 경북 동해안의 역사를 주도해 온 학교다.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는 신광면민의 자랑이요,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인물들이 즐비하다. 신광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코오롱그룹 회장을 지냈던 이

동찬 회장(7회)을 꼽을 수 있다. 우각리가 고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 온 산증인이다.

그리고 또 한사람을 더 꼽으라면, 우리나라 경찰총수로 치안을 책임졌던 이인섭 前 경찰청장(17회)을 꼽을 수 있다. 군출신 인사로는 차동욱 해군대령(34회)이 현재 해군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前 계명대학교 김활 교수(15회)와 前 경북대학교 이경섭 교수(17회)가 교육계에서 활동했던 이 학교 출신 인사다.

법조계에는 현재 포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권 변호사(30회)가 이 학교 출신이며, 이상도 전주지청장(37회)과 목포지검 검사로 재직중인 윤덕근 검사(51회)가 이 학교가 배출해 낸 자랑스런 인물들이다.

정계 인사로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지냈던 이동대(25회) 前의원과 현재 4선의원으로서, 제3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박태식 現 포항시의회 의원(34회)이 있으며, 관계 인사로는 이인섭 前 경찰청장(17회) 외에도, 대구북부경찰서장을 지낸 이동만 서장(23회)이 있고, 현재 법체처에 재직하고 있는 이원(34회)씨, 산업자원부 서기관으로 재직중인 심학봉(43회)씨 등이 이 학교가 배출한 인물들이다. 또한, 경제계에는 이동찬 前 코오롱그룹 회장(7회) 외에도, 한국나이론 사장을 지냈던 이원만(1회, 작고) 前 국회의원과 길운해운 사장을 지냈던 편재현(16회)씨가 있고, 일신석재 박홍조 前 사장(24회), 세원산업 김태곤 前 사장(32회) 등이 이 학교 출신으로 경제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의료계 인물로는, 현재 이동화 강동병원장(29회)과 흥해에서 강석암 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석암 원장(34회)이 이 학교 출신이며,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최근 개원한 이동철 내과의원 원장(37회), 그리고, 흥해 강외과의원 강명수 원장(37회), 포항동산치과원 이오균 원장(43회), 흥해 새천년의원 박성훈 원장(46회) 등이 이 학교 출신으로 의료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들에 이어 많은 젊은 후배들이 정 · 관계와 교육계, 언론계, 금융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골고루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의 총동창회장은 이대섭(대구, 섬유업)씨가 맡고 있으며, 차동민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박노미씨가 어머니회 회장을 맡아 학교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처럼, 각계 각층에 숱한 인물들을 배출해 냈던 신광초등학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학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 학교도 다른 농어촌지역 학교와 마찬가지로 80년대를 전후한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아동수가 많이 줄었다. 지금은 재학 아동수가 150여명에 불과하다. 신광초등학교는 지난 88년 3월 인근 냉수초등, 94년 9월 비학초등을 분교로 편입하였으나, 냉수분교 마저 폐교되고 지금은 면내 유일한 초등학교가 되었다. 지난 9월 제24대 류병하 교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23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더불어 살아가는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함양하고, 슬기로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며, 다양한 정보수집과 처리능력을 배양해 오고 있다.

또한, 힘찬 기상과 정신을「예절 바르고 창의적인 어린이, 새로움을 찾아 도전하는 어린이」라는 교훈에 담아 74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진정한 글 배움터로 거듭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97년에 道 교육청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98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이 학교 어린이들은 글짓기대회와 독서논술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했다. 많고 고운 심성으로 활기차게 뛰놀며 공부하는 신광의 어린이들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다.

오랜세월 숱한 인재들을 배출, 한국역사와 지역사회를 움직여 온 신광초등학교는 비학산 정기어린 힘찬 기상과 포항인의 강인한 정신을 심는 초등교육의 진정한 글 배움터로 거듭나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요람"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속에, 6개 학급 150여명의 아동들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명문학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도 교정 곳곳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차세대 주역이 되고자 배움의 열정을 꽃피우며, 원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태백산 줄기받아 우뚝솟은 비학산 / 용암천 맑은 흐름 동해바다 이루네 / 높은 뜻 밝은 슬기 저같이 갈고 닦아
큰 사랑 큰 빛으로 겨레의 등불되리 / 아아 신광은 아름다운 배움처 / 아아 신광은 나의 영원한 자랑

순백의 청초한 아름다움
병아리 꽃나무

순백의 하얀 꽃이 피는 모습이 어린 병아리를 연상케 하는 '병아리꽃나무'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이남지역에서 해발 500m이하의 계곡이나 해안가에 자생하고 있으나, 보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지역에는 남구 동해면에 군락지가 있으며, 지난 1992년 12월 23일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371호로 지정되어 학술 연구자원으로 보호되고 있기도 하다. 대대추나무라 불리워 지기도 하는 병아리꽃나무는 높이 2m 까지 자라고, 4~5월에 지름 3~4cm정도 되는 둥근 꽃잎 4장의 흰색 꽃이 피며, 새가지 끝에 꽃이 한개씩 달린다. 순백의 청초한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다. 향후, 우리 포항의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꿈과 슬기, 창조의 요람
"포항아트타운"

손을 가볍게 내밀면 푸른 동해바다, 영일만이 손에 잡힐 듯이, 시원한 쪽빛 바다내음 물씬 풍겨오는, 바닷가 언저리 전망좋은 곳, 그 곳에 자리잡은 "포항아트타운"

지난 2001년 3월 인근 항구초등학교와 통합하면서 폐교가 된 대양초등학교를 같은해 5월 포항교육청에서 새롭게 단장하여 푸른꿈을 가꾸어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었다.부지 1만여평 규모에 도예실과 댄스스포츠실, 종이공예실, 전시실, 회화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아침 9시에 들어와서 6시간 동안 종이공예, 도예, 그리고 댄스 스포츠, 회화 등을 배우고 체험하게 한다.

'포항아트타운'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2학년, 그리고 교원이나,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1회 입소인원은 100명 정도이며, 주 4일 정도 운영된다. 방학중에는 특별반을 운영하며, 지난해는 8천여명이 이 곳을 찾아 체험활동을 했다. 포항아트타운은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건전한 인성 함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포항아트타운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주민들의 훌륭한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의 장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포항아트타운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인성, 창의성을 넓혀가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포항아트타운 054)252-1177)

김정구 /
시인, 지역문학연구회회장

'느껴지는 문화도시' 포항을 꿈꾼다

문화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우리는 흔히 '문화는 삶의 양식이며, 동시에 그 양식을 결정하는 삶의 형태'라고 어렵게 정의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화는 이미 문화의 이름으로 포장된 학문이 되고 만다. 언제부터 인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문화라면 '무언가 쉽게 이해가 안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문화의 개념이 이렇게 갇혀 있는 한, 문화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별개의 장식물일 뿐이다. 조선왕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문화나 예술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생활과는 유리된 채 박물관 속에, 또는 전시공간의 액자 속에, 두텁고 어려운 책 속에, 연주회의 악보 속에서 고이 보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던 문화를 풀어내어 또 다른 곳에 갇혀 지내는 우리들의 일상과 만나게 해야 한다. 문화란 따지고 보면 저 먼 곳에 있는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일상에서 보는 생활의 때이며, 일상의 축적이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무늬이다. 문화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일상으로 되돌아 와서 봉사한다. 일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굳이 기억해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술술 외워지는 구구단 같은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계속되는 일상에 식상하여 늘 하던 일조차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늘 먹던 밥과 김치가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심사이다. 한 편의 비디오 필름처럼 날마다 똑같이 재생되는 일상의 따분함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낯익은 거리, 늘 만나는 얼굴, 나 없이도 잘만 굴러는 세상, 이런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 그 희망이 바로 문화가 아닐까? 나 없어도 잘만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환상보다 더 짜릿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우리에게 문화는 그런 축복이어야 한다.

날마다 내가 껴안고 살아야 하는 늪같은 일상에서 그 축복은 일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온다. 때로는 달게, 때로는 겨자같이 맵게,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상처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갖가지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는 문화를 맞아 들이면서 비로소 입체적인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상에 함몰되어 있던 자아가 깨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포항 문화의 표정

이렇듯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면 국가나 도시도 당연히 그 나름대로 특성과 표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 포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문화를 또 다른 말로 표현 한다면 그 시대,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그렇다면 포항의 자존심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곧 포항의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같다.

포항의 문화는 무엇인가 ? 바다인가 ? 과메기인가 ? 저 거대한 공장인가? 기업도 기업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자기네들의 문화를 공급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포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산업도시로만 알려져 있었고, 문화에서 조차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시 되는 정치, 사회적인 풍토 탓으로 아직은 포항의 문화라고 집대성하여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내외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포항은 이제부터 포항문화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인구 50만의 인적 구성 요소와 그동안 포항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호미곶 해맞이광장, 환호해맞이공원, 포항테크노파크, 문화예술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많은 물적 자원은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다. 이러한 물질적 기반 위에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 포항이다.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집단이 수준 높은 창작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도시들이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는 외면한 채, 물려받은 유 ·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에만 안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문명이 곧 문화가 아니듯이 건물과 탑, 조형물과 성곽 등 눈에 보이는 것은 문화의 본질이 아니다.

전통과 유물의 보존만으로 문화가 대변 되어서는 곤란하다. 문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움직이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정신을 더 깊고 올바르게 키워 나가기 위한 촉매이며 그릇일 뿐, 본질은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근의 유서 깊은 도시에 비해 보존하고 가꾸어 가야 할 대상을 적게 가진 포항은 역설적으로 문화의 본질에 접근하기 쉬운 배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포항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문화적인 욕구의 크기와 수준도 우리나라의 여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써클이나 동인 활동 또한 대단히 활발하여 포항은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예술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

거기에다 동사무소 단위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인적 문화자원임을 생각하면 포항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포항문화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문화이다. 꿰어야 보배가 되는 그런 문화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제 포항은 이미 확보된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를 찾아낼 때이다. 훌륭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포항이야말로 창의적인 문화도시의 훌륭한 표본이 되리라 믿는다.

보여주는 문화는 가고, '느끼는 문화'가 온다.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일이지만, 우리시대의 문화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 무엇이다. 피동적 문화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문화의 혁명이 새로운 세기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포항도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곧 소멸을 의미한다.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은 누가 해야 하는가 ?

이 일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몫이다. 문화를 키워나가는 일은 문화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우리문화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요즘 어른이나 아이나 입버릇처럼 쓰는 말인 " 인 것 같아요"로 대변되는 불확실성의 문화, 익명의 문화, 문화 같다는 그런 '무늬만 문화'인 시대는 갔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과 느끼는 사람,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거리는 언제까지 존재 할 것인가 ?

나눌수록 커지는 문화의 힘

문화의 힘은 신비하다. 부르면 힘이 되는 노래같은 것이 곧 문화이다.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는 문학이 곧 문화이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문화이다. 그런 문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 내가 그 문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곳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문화가 있는 '그 곳'을 그리워 한다. 그 곳은 어디인가 ?

바로 문화를 그리워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가슴속이다. 노래는 내가 불러야 살아있는 노래가 된다. 듣기만 하는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다.

문화는 예술가들이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급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문화이다. 나는 이런 문화가 시민의 가슴마다 살아 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또 소망한다. 포항시는 그 터전을 단단히 다지고, 문화 예술인들은 그 씨를 뿌리며 가꾸어 나가기를,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문화가 바로 우리 포항의 문화이기를, 그래서, 어느 먼 도시나 먼 나라에서 우리 지역 어느 곳에서나 항상 살아 숨쉬는 우리의 문화를 보고, 듣고, 함께 느끼기 위해서 우리 포항으로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문화가 뉴스

정장식 포항시장, '수필가'로 문단에 등단

정장식 포항시장이 수필 전문지인 월간 '수필문학' 2003년 3월호에 수필 '나의 좌우명'으로 등단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드물게 수필가로 문단에 등단한 정장식 포항시장은 평소 바쁜 업무속에서도 책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 왔다.

이번 등단 작품인 수필 '나의 좌우명'은 평소 정 시장의 검소하고 꾸밈없는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체의 흐름이 차분하면서도 그 적용이 매우 지혜로운 교훈적 기능이 강한 글이다.

젊은시절 신춘문예에 여러차례 응모하며 문학도를 꿈꿔왔던 정 시장은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문학인으로의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해 오다가, 비록 늦깍이지만 이번에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96년에 일상과 공직생활을 통해 느낀 생각들을 담담하게 담아낸 『뒤집어본 세상이 아름답다』에 이어, 지난해 『아름다운 길』을 출간하기도 했다.

'미스경북 선발대회' 포항에서 열린다

미의 제전 '2003 미스경북 선발대회'가 오는 4월 12일 우리 포항에서 열리게 된다. 이달 말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개최하게 되는 이번 미스경북 선발대회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지역 예선에 해당되며, 여기서 선발되는 진, 선, 미는 본선인 '200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하여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제4대 포항문화원장에 이병락씨 취임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포항문화원을 이끌어갈 제4대 포항문화원장에 이병락(60세)씨가 선출되어 지난달 6일 취임했다. 신임 이 원장은 경상북도사격연맹, 경상북도조정협회 실무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삼창건설 회장, 포항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포항문화원 이사로 활동해 왔다. 이 원장은 앞으로 '포항문화원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향토 문화진흥과 시민문화 향수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으며,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찾아가는 예술단', 어디든지 달려가

포항시립예술단에서는 올해부터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객을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 지역민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시립연극단은 지난 2월에 2차례, 이달에 와서 1차례의 공연을 펼쳤다. 시립합창단은 지난 2월 28일 청하면의 노인무료 요양시설인 정애원에서 1차례 공연을 했고, 시립교향악단도 성모자애원 외에 두 곳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 왔다.

文化

앞으로도, 신청만 하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는 예술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03 여성취업 및 창업박람회' 개최

포항시에서는 지역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4월 3일 "여성취업 및 창업박람회"를 연다.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의 구인과 구직을 알선하고, 취업을 상담하며, 여성들의 소자본 창업에 대한 상담과 창업강좌를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여성취업 설명회, 여성장애인 취업상담 등이 다채롭게 열리게 되며, 20대 여성부터 50대 중반 여성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제2회 호미곶 해맞이 전국사진 공모전' 열려

올해 두번째인 '호미곶 해맞이 전국사진 공모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2003'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80점의 우수 작품이 출품되어 '소중한 등대'를 출품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이진환(38세)씨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강창구씨가 출품한 작품이, 동상에는 울진군 북면의 박영교씨와 울산광역시 동부동 지일환씨가 출품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호미곶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되게 된다.

▲ 제2회 호미곶 해맞이 금상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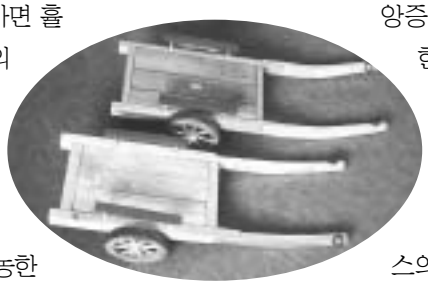
올해 주요 문화예술행사

단오절 민속축제 (음력 5월 5일)	환호해맞이공원	그네뛰기, 민속놀이
제5회 송도해변축제 (7월말)	송도해수욕장	해변영화제, 공연, 참여놀이마당
제4회 북부해변축제 (8월초순)	북부해수욕장	해변영화제, 공연, 참여놀이마당
2003 포항바다국제연극제 (7월말~8월초순)	환호해맞이공원	국 · 내외 연극단체 작품공연
제5회 영일만축제 (10월초순)	종합경기장 시내일원	<전통문화행사>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 전통민속놀이 재연 <공연 및 전시> 장르별 공연, 전시회 시민참여행사> 시민체육대회 시민노래자랑 축제행진 · 백일장 등
제7회 포항과메기축제 (12월말)	북부해수욕장	공연, 과메기판매
제6회 구룡포 특산물축제 및 문화행사 (12월말)	구룡포항	공연, 민속놀이, 특산물 판매
2004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12월31일~1월1일)	호미곶해맞이광장	축하공연, 해맞이행사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짚풀 공예가 이영출 씨

이씨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 그의 손놀림이 매우 빠른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기 짝이 없다. 이씨가 만든 작품들은 주로 장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 그가 만든 공예품들은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고, 귀엽기도 하면서 깜직하기 이를데 없다. 앙증맞은 그의 작품들을 지켜 보다 보면 한두개쯤 사고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짚이며, 풀, 나뭇가지, 무엇이던 그의 손에 들어가면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이영출(68세)씨가 그 주인공. 그는 태어날 때부터 농아로 태어나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70여 년의 소리없는 세상을 살아왔다. 산골마을 기북면 성법리(이장 이향우) 마을회관 2층이 그의 주 작업장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6월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라져 가는 짚풀 민예품을 만들어 농가 부수입을 올리고, 전통도 살릴 수 있도록 '짚풀민예품 제작 전승마을'로 지정하면서 마을회관 2층에다 공동작업장 겸 전시장을 설치해 준 것이다.



청각장애 2급인 이영출씨는 어린시절부터 그의 아버지가 짚으로 가마니나 짚신, 망태기, 멍석 등을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 유일한 낙으로 삼아 지금까지 만들어 오게 되었다고 한다. 남달리 손재주가 뛰어난 그는 20대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의 긴긴 세월동안 자신의 외롭고 답답함을, 많고 많은 소리없는 이야기들을 짚과 풀, 나뭇가지, 그리고 그의 손끝에 담아 소리없는 그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가 이세상과 나누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면 그가 만들어 내는 짚풀공예 작품이 유일할 것이다. 그는 산과 들을 누비며 구해 온 짚, 풀, 나뭇가지 등을 가지고 앙증맞은 작품들을 거침없이 쏟아 낸다. 무엇이든 그의 손에 들어가면 눈깜짝할 사이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의 손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와 같이 30여년을 일해 온 정수암씨도 그의 솜씨를 따라 가지는 못한다. 그가 만든 공예품에는 옛날 우리네 조상들의 전통이 아스라이 배어 있다. 어린시절의 추억까지도 묻어나게 한다.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모습을 되살려 내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그는 자신이 만든 각종 민예품을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 왔으며, 5남매의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출가도 시켰다.

그가 사는 산골마을 성법리는 마을 앞뒤로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빼곡이 둘러서 있다.

이 마을은 근래에 와서 짚풀 공예마을로 유명해 졌다. 외국인, 학생, 주부 등에 이르기까지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며, 어린 학생들의 학습체험장 역할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영출씨의 공이 컷다고 할 수 있는데, 이씨가 성법마을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낸 주역인 샘이다. 덕분에 이 성법마을은 관광객도 늘고,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되는 고추가 기장 등의 농산물을 직접 사가기도 한다고 한다.

이씨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 그의 손놀림이 매우 빠른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기 짝이 없다. 이씨가 만든 작품들은 주로 장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 그가 만든 공예품들은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고, 귀엽기도 하면서 깜직하기 이를데 없다. 앙증맞은 그의 작품들을 지켜 보다보면 한두개쯤 사고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물론 장식품용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만든다. 그는 짚, 풀, 나뭇가지만 있으면 무엇이나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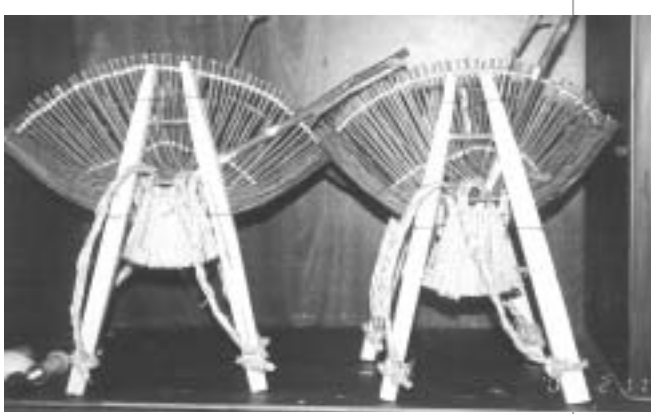
앙증맞은 지게에서부터, 소박한 우물, 원두막, 디딜방아, 망태기, 대문, 멍석 등 그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은 130여가지 정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서, 더 작게, 더 아름답고 예쁘게, 앙증맞게 만들어 경주 등 관광지에 공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농업인한마당 등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만든 물건을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인기가 무척 좋았다고 한다.

이 곳을 직접 찾아 구입해 가는 양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이영출씨는 인근에 장이 서는 날은 어김없이 오토바이에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득 싣고 나선다.

그는 장터 한켠에 자리잡고 이곳에서 세상과 대화를 나눈다. 그가 만든 작품들은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많게는 2~3만원에 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5,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오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그리고 혼이 묻어나는 전통공예품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은 많이 줄어 들었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이러한 기술의 맥이 끊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첨단기술로 지구의 미래를 지킨다'

환경 벤처기업, "그린케미칼"

첨단기술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큰 꿈이 무르익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벤처기업 '그린케미칼(대표이사 소재춘)'.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작지만 큰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회사이념 아래 20여명의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새로운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에 구설땀을 흘리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케미칼을 찾아가 보았다.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보다 빠르게'라는 고객만족 방침으로 소비자인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기업, 그린케미칼은 지난 99년 3월 22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쾌적한 지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다. 최고의 기술만이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신조 아래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지역벤처 선도기업 그린케미칼은 지난 99년 탁월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이 첨단 신기술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창업보육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0년 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2001년 11월에는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INNO-BIZ)기업으로 동시에 지정받아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2002 벤처대상'에서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설립초기에는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고, 지난 2001년 10월 산은케피탈의 경북 벤처펀드 1호로 선정되어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서부터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소재춘(44세) 사장. 그는 13년 동안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다양한 화학제품들을 개발하기도 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소재춘 사장은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화려하게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린케미칼은 지난 99년 설립 당시부터 저온탈지제, 전청오염방지제, 그리고, 석탄이나 원료탄의 이송과 야적시 발생하는 분진사업장의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표면경화제, 폐수처리과정에서 불소공정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불소처리제 등을 자체 개발하여 포스코(옛 포항제철)의 포항 · 광양제철소, 철도청 등에 납품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신제품 '저온복합 탈지제'를 개발했다. 소재춘 사장을 비롯한 이 회사 전직원이 이 제품 하나에 회사의 사운을 걸겠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로 똘똘 뭉쳐 있다. 이 제품 하나로 년간 40여억원 이상 매출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뜨거운 열기가 이 회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 이들의 뜨거운 의지와 바램이 하늘에 닿았음인가 ? 금년 들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은 다르다. 회사 설립 이래 줄곧 매년 100%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

소재춘 사장의 직원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남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 친형제, 친가족같이 생각하고, 소중한 인재로 여기고 있으며, 인재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철저한 동료애로 한가족같이 지낸다. 새로운 기술연구와 개발에는 끝이 없고 밤낮이 따로 없다. 기술연구소 젊은 직원들은 본사 사옥 2층에 마련된 주거시설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린케미칼은 지난달 제2의 창업이나 마찬가지인 큰 경사를 맞았다.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면서도 남원공장에 이어 지난달 7일 북구 청하면 농공단지에 새로이 본사 사옥과 포항공장 건립하여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첨단과학 산업도시 포항의 첨병 역할을 할 포항테크노파크에도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사업활동에 들어갔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어 고객이 원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 회사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까마득히 잊은채 대낮같이 불을 밝히며, 기술개발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이 밤낮없이 연구한 결과 개발한 제품만해도 20여종에 이를 정도다. 모든 그린케미칼 가족들의 노력으로 창립 4년만에 포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했고, 이젠 포항을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질주하고 있다. 이것을 기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그린케미칼의 식구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인정하는 기적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이다. 올해는 80억원 매출 목표를 넘어 매출 100억원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희망찬 꿈과 포부를 가지고, "Green Man의 행동강령"을 되새기며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S&B Corea를 설립하여 경영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설탕을 주원료로 하는 환경에 전혀 해가 없는 무독성 주방세제 등의 소비제 제품군 개발에 착수하여 3월 현재 19종의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안전마크(S-Mark)를 획득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검증을 받았다.

빠른 시일내에 무독성 주방세제 등을 상품화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재춘 사장은 "앞으로, 그린케미칼과 S&B Corea는 첨단 신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들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하여 '제품을 깨끗 이 하 고 (Clean Product)', '폐수를 맑게 하 며 (Clean Water)', '공기를 깨끗하게(Clean Air)'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인류 생활의 터전인 지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소탈한 너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주식회사 '그린케미칼',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700년 묵은 신광면 마북리의 느티나무처럼, 탄탄한 경영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슈퍼 글로블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견고하게 받쳐주고 이끌어 가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회 포항 해변마라톤대회

포항해변마라톤대회에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4월 푸르른 날에,
쪽빛 푸른 동해바다를 보며, 푸른 꿈과 함께 달린다.

언　　제 | 2003년 4월 20일(일) 09:00
어 디 서 | 포항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앞)
경기종목 | 건강달리기(5km), 단축마라톤(10km), 하프코스마라톤(21.0975km)
접수기간 | 2003년 3월 3일(월) ~ 3월31일(월)까지
접수방법 |

▶ **온라인 접수** : 참가비 온라인 입금후 인터넷 신청
- **참 가 비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송금 가능**
  ※농협중앙회 (743-01-331176 / 포항시체육회), 대구은행 (210-05-000461-5 / 포항시체육회)

▶ **방문접수** : 읍면동 사무소, 남 · 북구청 총무과, 포항시 사회진흥과, 포항시체육회 직접 접수
▶ **FAX접수** : 신청서 작성, 입금영수증과 같이 팩스 송부

문　　의 |
▶포항시체육회 (☎ 054-274-2757 · Fax. 277-8957) / 포항시 사회진흥과 (☎ 054-245-6627 · Fax. 245-6099)

주최 포항시, 민주평통포항시협 의회
주관 포항시 체육회, 포항문화방송(주)
후원 포항시의회, 포항북부경찰서, 경북일보, 경북매일

푸른바다와 함께 탁 트인 해변을 달리는 제3회 포항해변마라톤대회-
북부해수욕장에서 출발하는 이번 마라톤에서는
건강달리기, 단축마라톤, 하프코스마라톤 어느 종목을 선택하셔도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부와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동료와 함께 달려도 좋은 곳 !
이 곳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라톤 대회 코스

종목별 참가내용

건강달리기 _ 5km

- 경기출발 : 2003. 4. 20(일) 09:40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코 스 :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 환호삼거리
- 참가자격 : 남녀노소 희망자 전원
- 참 가 비 : 5천원 (초,중,고등학생 3,000원)
- 제한시간 : 1시간 30분
- 시 상 : 1~3위 트로피 및 부상, 4~6위 부상

단축마라톤 _ 10km

- 경기출발 : 2003. 4. 20(일) 09:30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코 스 :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 포항1대학 왕복
-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남 · 여
- 참 가 비 : 1만원
- 제한시간 : 2시간
- 시 상 : 1~3위 트로피 및 부상, 4~6위 부상

하프코스 _ 21.0975km

- 경기출발 : 2003. 4. 20(일) 09:10
- 코 스 :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 용한1리 (신항만 입구) 왕복
-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남 · 여
- 참 가 비 : 1만 5천원 (스피드칩 사용)
- 제한시간 : 3시간
- 시 상 : 1~3위 트로피 및 부상, 4~6위 부상

※ **일본마라톤 원정대회 출전 왕복항공권 제공 (1위 남,녀 각1명)**

특별상

- 최고령 완주상 (남 · 녀 각1명) 부상 수여
- 60세이상 노인 1~3위 부상 수여
- 부부 함께 달리기 (5km) 1~3위 부상 수여
- 최다단체 참가상 (1개 단체) 부상 수여

Cyber World

첨단 IT기술이 인간과 로봇의 공존시대를 연다

정보통신 기술과 정밀기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우리의 삶의 구조와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그 주역은 뭐니뭐니해도 첨단 IT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IT기술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 생활 속으로 급속히 파고 들고 있다. 단적인예가 바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휴먼로봇의 개발과 출현이 아닐까 ?로봇(Robot)은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쓴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그동안 로봇 개발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1961년 최계 최초로 미국의 GM(제너럴 모터스)사가 물건 운반용 로봇을 공장에 설치하면서 산업용 로봇의 시대를 열었다. 그 이후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휴먼로봇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휴먼로봇'은 말하고, 듣고, 걷고, 감정까지 표현하는 그야말로 첨단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휴먼로봇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IT기술의 급격한 발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밀기계나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휴먼로봇'은 단순히 인간모습의 로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작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지능형 로봇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 과학, 연구, 의료, 우주, 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일본 등 로봇강국들은 최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로봇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휴먼로봇의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멀지않아 우리들의 친구가 로봇으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들의 일상속으로 파고들 로봇들, 한편으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지가 차세대 휴먼로봇의 원형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산업용 로봇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로 국가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휴먼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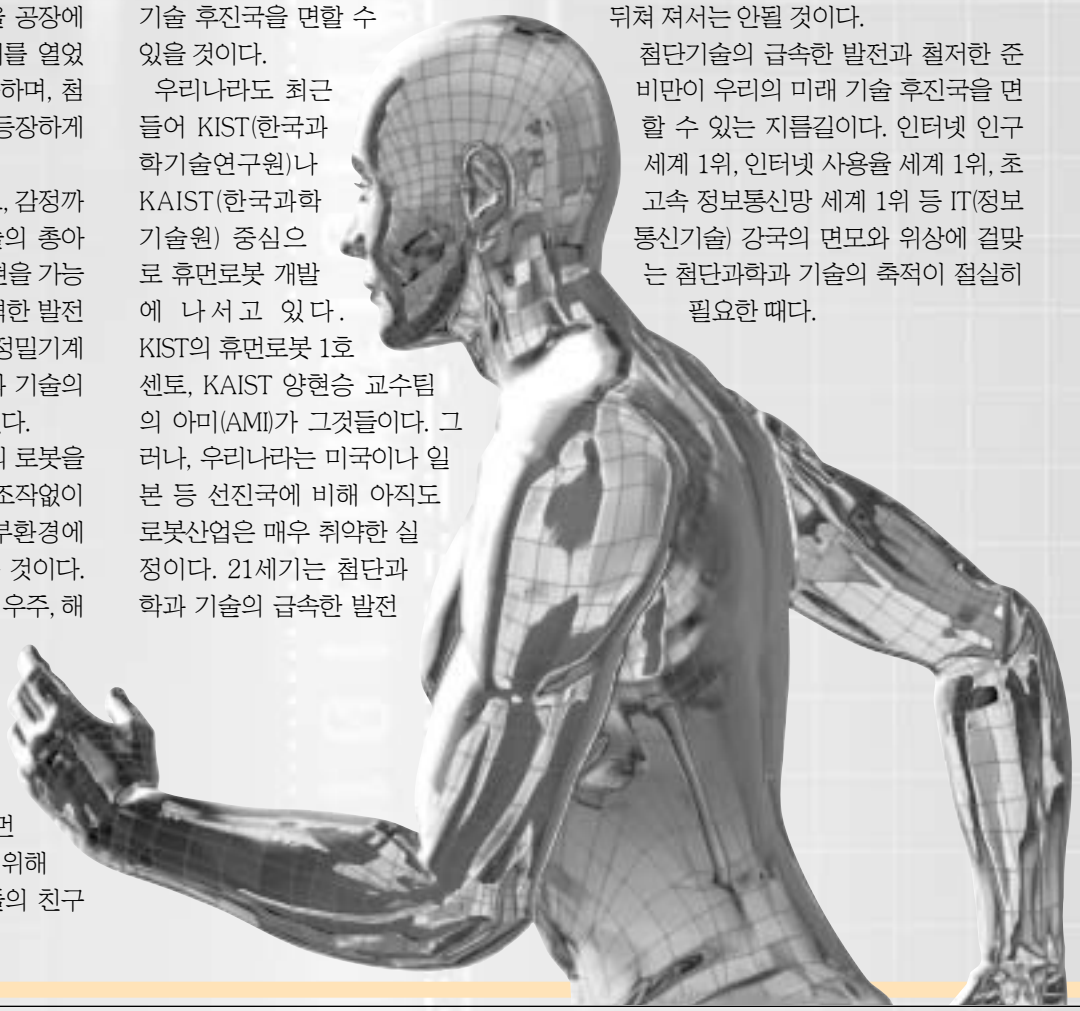
첨단과학과 기술의 총아인 휴먼로봇 개발을 주도한 나라가 틀림없이 세계의 미래 기술과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대열에 합류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미래 기술 후진국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 중심으로 휴먼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다. KIST의 휴먼로봇 1호 센토, KAIST 양현승 교수팀의 아미(AMI)가 그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로봇산업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21세기는 첨단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나 전화기처럼 휴먼로봇이 대량 보급되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로봇연합(IFR)은 2003년에 휴먼로봇의 수요를 40만대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 로봇협회도 2005년에 세계로봇산업의 시장 규모가 7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만 보아도 놀랍기 그지없다.

앞으로, 로봇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진국들의 경쟁과 주도권 싸움은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를 더욱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도 뒤쳐 져서는 안될 것이다.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의 미래 기술 후진국을 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인터넷 인구 세계 1위, 인터넷 사용율 세계 1위, 초고속 정보통신망 세계 1위 등 IT(정보통신기술) 강국의 면모와 위상에 걸맞는 첨단과학과 기술의 축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Cyber World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365일 원클릭, 원스톱

전자민원 서비스 시대 개막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해 오던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시 · 군 · 구와 연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원클릭, 원스톱으로 더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는

-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 ⇒ 178종
- 무인민원, 창구PC 이용 제증명 발급 ⇒ 38종
-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 실시간 확인 ⇒ 773종이 대상이 됩니다.

  ☞ 3월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전자민원 서비스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접속
- 전자민원창구 메뉴 클릭
- 해당 신청서 선택, 기본사항 입력, 서식작성
- 수령방법 선택 ⇒ 본인확인 ⇒ 수수료 결재(계좌이체, 신용카드)

✲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6월부터 지방세 전자고지, 민방위훈련 통지서 교부
- 9월부터 주민등록 관련 대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

✲ 전자민원 서비스시대 개막으로,

- 민원서비스가 빨라지고,
- 민원처리과정도 투명해 지게 되었으며,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전 국민 평등 서비스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연합 댄싱 동아리 "만장크루"

포항지역 청소년들의 연합 댄싱 동아리 '만장크루(단장 신상락, 25세)'. 지난 98년에 남녀학생 10여명으로 맴버를 구성하여 창단하게 된 댄싱 동아리다. 창단 이듬해인 1999년부터 전국 또는 지방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만장크루'는 다른 동아리와는 체제가 다르다. 처음에는 만장크루 하나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댄스 분야별로 세분화 되었다. 지금은, '조이 락커스(리더 이태윤, 5명)', '솔트레디션(리더 신상락, 5명)', '비잘브레이크스(리더 최병희, 6명)' 등 3개의 청소년 댄싱 동아리로 구성된 연합 댄싱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댄싱 동아리별로 리더가 있고, 그 위에 연합 댄싱팀 만장크루를 이끄는 단장이 있다. 만장크루의 대회 입상경력은 정말 화려하다. 전국 또는 지방의 크고 작은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0여차례 이상 우승을 걸머 쥐었고, 3위 이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만해도 20여차례나 된다. 그들의 활동무대는 포항지역만이 아니다. 전국을 무대로 맹활약을 펼쳐오고 있는 만장크루는 청소년들로부터 지역 최고 아니 전국 최고의 댄싱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장크루'가 이처럼 짧은기간에 이와 같은 화려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고의 댄싱팀으로 급부상한 것은 '만장크루'를 이끌고 있는 단장 신상락 군의 노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상락 군은 지난 99년 12월부터 단장을 맡아 지금까지 만장크루를 이끌고 있다. 또한, 포항 10대들의 둥지 청소년문화기획단장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만장크루가 있기까지는 팀 맴버들의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춤 장르는 힙합 프리스타일, 하우스 등 다양하다. 현재, '만장크루'는 20여명 정도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조이 락커스'나 '비잘브레이크' 등의 소속 팀원들은 15명 정도이고, 연습생들도 많이 있다.

만장크루를 처음 창단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10월에 '포항 만장크루 힙합스쿨 강좌'를 열면서, 수강한 청소년들과 당시 강사로 활동했던 현재 신상락 군이 뜻을 모아 창단하게 되었으며, '만장크루'는 '아주 잘한다', '최고다' 라는 의미를 지닌 은어란다.

전국 청소년 동아리들 사이에는 '만장크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특히, 춤을 사랑하는 춤꾼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매우 높다. 지난 3월 초에는 포항에서 경북, 경남지역 40개 댄스 동아리가 참여하는「제5회 K · B 스트랩 댄스대회」를 만장크루가 주최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기성세대들은 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포항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만장크루는 포항인의 힘찬 기상을 떨치고 있는 포항을 대표하는 청소년 동아리이다. 이들의 꿈은 소박하기 그지 없다. 포항에서 최고가 아니라, 포항을 스트릿과 잼의 본 고장으로, 포항을 최고의 춤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꿈이요, 목표다.

그것은 곧 포항지역의 모든 청소년들과 춤의 어울림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가입문의 : 단장 신상락 272-4008, H · P 018-670-4008)

청소년들의 친한친구

'포항 청소년 쉼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포항 청소년 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혜정 소장의 말이다.

청소년들의 인권 의료복지 지원센터인 포항 청소년 쉼터는 지난 2000년 10월 새한교회 배호경 목사가 사재를 들여 남구 대도동에서 40여평 규모로 처음 문을 열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현재 북구 보건소옆 새한교회 1층 선교관으로 이전하여 사무실과 공부방 등을 열고, 인근 두호동에 24평 정도의 일반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생활관은 방 3칸에 숙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생활 지도사도 1명을 두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설립 이후 상대교회 목사와 집사, 신도들의 지원과 자원봉사로 운영되어 왔고, 그 이후에 다른 많은 교회 목사,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지금도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포항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과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유해 환경과 탈선, 비행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사설 청소년 쉼터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결손 가정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청소년들과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과 지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되돌려 보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일도 함께 해오고 있다.

이곳에는 9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 과 학교나 경찰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의뢰해 온 청소년들이 들어 온다.

이곳 쉼터에서는 문화탐방, 공부방, 학산복지관의 PC 정보화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혜정 소장은 배호경 목사의 부인으로, 2001년 7월부터 남편 배호경 목사의 권유로 이 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좀처럼 열지 않는 청소년들과 몇 차례 실랑이를 하고 나면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포기할 때는 참 담함 마저 느꼈다고 토로하는 문소장은 그래도 집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학교도 잘 다니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연락을 전해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일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희망들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사회의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문 소장은 앞으로 성매수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해 보고 싶은 것이 꿈이다. 그리고, 소년원 출소 청소년들까지 확대해 보호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란다.

또한, 청소년 쉼터의 시설이 확충되어서 고민과 문제를 가진 많은 청소년들의 진정한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포항청소년쉼터 252-7179)

N세대 뉴스

지곡초등,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최우수 단체상' 수상 영예

포철지곡초등학교(교장 김진원)가 지난해 11월 미국, 영국, 일본 등 32개국 12만여명이 참여여 실시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국내 110개팀(3천850명) 가운데 최우수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철지곡초등학교는 지난 200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학교 학생들이 세계 상위권의 수학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수학 명문 학교의 위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학교생활 연계한 열린 수련관' 운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업활동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용꺼리와 수련관을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영화교실, 청소년 예절교실, 또래상담, 청소년 힙합, 댄스등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게 된다.

韓日 초등생의 인터넷 만남 기회 가져

한국과 일본 초등학생들이 지난 1월 28일 사이버 공간에 마련된 국제학교에서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주인공들은 이동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과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도모소학교 6학년 2반 어린이들이다. 이들 어린이들은 인터넷 화상수업을 함께하며, 친선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화상수업을 통해 양국간 어린이들이 서로 친밀감을 갖게 됐고,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과 만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10대들의 둥지", 청소년 커뮤니티형 홈피 구축해

갈곳없는 10대들의 보금자리, 청소년 문화의 집 포항 10대

들의 둥지가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다가서게 됐다. 포항 10대들의 둥지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인터넷실, 수련실, 상담실, 진로지원실 등을 갖춘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었다. 또한,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 커뮤니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체 개발한 커뮤니티형 콘텐츠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형 홈페이지(www.doongji.or.kr)를 구축해 청소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포항 10대들의 둥지'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 해결해 주고, 가출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문의 : 054) 247-1079)

'포철동초등학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에 뽑혀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지막한 산자락 언덕에 포스코 효자아트홀을 뒤로하고 자리잡은 포철동초등학교(교장 이강화)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뽑혔다. 지난해 10월「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가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여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200여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이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학교로 뽑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친자연적이고, 만남과 생활, 환경이 아름다운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학교, 아름다운 변화가 살아 숨쉬는 학교, 어린이들이 신나게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학교로 가꾸려고 노력하는 학교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내나무가꾸기, 나의 야생화 심기, 환경파수꾼 활동 등의 프로그램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을 가꾸어 왔다. 이 학교는 지난 88년 창단한 축구부가 유명한 축구명문 학교로 이동국 선수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다.

칠성강(七星江)의 효자

칠성강(칠성천)은 "포항"의 뿌리로 포항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도 옷을 갈아 입었다. 그러나 그 칠성강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칠성강(七星江)은 형산강 제방을 쌓기 전 용당동 앞에서 동북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지류가 남빈동 앞을 지나 지금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으로 유입되는 강으로 본래는 용당강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죽도어시장 북편 복개천에서 포항역 앞을 지나 용흥동의 대안골로 연결되었던 강인데, 이 칠성강에 얽힌 재미난 전설이 있다.

이 칠성강(용당강)의 서쪽 언덕 용당동에 한 아들이 과부가 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한다.

어머니는 홀로된 뒤부터 밤늦게 아들이 잠든 틈을 타서 외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을 나갔으나, 점차 회수가 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밤마다 집을 나가게 되었다.

눈이 내리고 세찬 바람이 부는 동짓달 어느 날, 아들은 밤마다 몰래 집을 나가는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끝끝내 참지 못하여 어머니의 뒤를 살짝 따라가 보았다. 어머니는 용당동 언덕에서 옷을 벗고 강을 건너 상도동 어느 홀아비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아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들은 엄동설한 한밤중에 옷을 벗고 강을 건너는 어머니를 위해 징검다리를 놓기로 하고, 용당강에 며칠 동안 남몰래 돌을 일곱 개 주워다가 다리를 놓았는데, 나중에야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연일현감에게 고하여 효자상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그 아들의 효행에 감동하여 용당강을 효자강이라 부르고, 칠성교를 효자교라고도 불러 왔다.

한편, 사람들은 그 아들이 모친에게는 지극한 효자이나, 죽은 부친에게는 불효자라 하여 용당강을 '효불효강(孝不孝江)'이라고도 부르고, 칠성교를 '효불효교(孝不孝橋)'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포항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가로질러 흐르던 칠성강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복개되어 그 형체조차 짐작이 어렵다

▲ 오늘날 복개된 칠성천의 모습

아 침 밥

권현구 / 남구 동촌동

아침이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힘들게 농사지어 보내주신 쌀로 아내는 밥을 짓는다. 나는 그 쌀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느낀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 위에 모락모락 오르는 김을 바라보면 없던 입맛도 절로 난다. 혹시나, 전날 회사 일로 술이라도 한잔하여 입맛이 없을 때도 "밥이 보약이대이 밥을 거르지 마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꼭 밥을 챙겨 먹고 출근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

아내는 이런 남편 때문에 가끔 투정도 하지만 특별한 보약 없이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밥을 든든히 먹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나 이기에 한끼도 거르지 않고 밥을 먹겠다는 남편의 고집을 굳이 꺾지는 않는다. 이런 나의 고집 때문에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식탁 위에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김치 한 보시기, 하얀 쌀밥 한 식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파트 뒤에 있는 조그만 산에 아침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의 아침식탁이다. 아침운동 후에 맞이하는 아침밥상은 나의 입맛을 돋구기에 충분하다.

나는 가난한 농사꾼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아침저녁은 시꺼먼 꽁보리밥으로 배를 채웠고, 점심때는 네 형제가 골고루 먹어야 했기에 토막을 내서 찐 고구마 두 토막으로 점심밥을 대신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 너도나도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 세 끼니 걱정은 들게 되었다. 그것도 고봉으로 가득 담은 하얀 쌀밥으로의 전환은 반찬 없이도 배를 부르게 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여름에는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시원한 우물물에 밥을 말아 먹었고, 겨울에는 따끈한 숭늉이 반찬을 대신했다.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으로 고등학교까지 나온 나는 세월이 좋아진 탓인지 막내의 특권인지, 어려운 살림에서도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하숙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숙 밥이라는 것이 내 배에는 기별도 안가는 공기밥이었다. 반찬은 어찌 그리 많던지.... 두어 숟가락 뜨고 나면 밥공기는 비어 버렸고 이것 저것 반찬을 집어 먹으며 배를 채워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었다. 하숙집 아줌마의 따뜻한 배려로 늘 내 앞에는 공기밥 두 그릇이 놓였고 그 덕분(?)에 나의 별명은 식충이가 되어 버렸다.

그래도 항상 모자라는 밥과 하숙집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이상 하숙을 하지 못하고 늙으신 고모님께 의탁하여 고봉으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론 얼마나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어져 온 버릇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라면을 먹어도 밥을 같이 먹어야 하고 빵을 먹어도 밥 들어갈 배는 따로 있었다. 시골에서 자란 아내도 나의 식습관을 아무런 군소리 없이 받아 주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아침의 풍경이 사라진 날이 있었다. 직장생활 3년차 되던 어느 날, 집에 책장을 하나 들이고 겸사 겸사 방 구조도 바꿔보며, 밤늦게 까지 정리를 하고는 새벽 3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먼동이 환하게 터였을 때 깜짝 놀란 아내가 부리나케 깨우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여덟 시, 이 일을 어쩌나, 여덟 시 삼십 분까지는 회사에 도착해야 하는데 큰 일 이었다. 고양이 세수를 하고 옷을 걸쳐 입고는 자명종 시계를 자신도 모르게 누르고 잤다며 어쩔 줄 몰라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허겁지겁 회사에 도착하니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 출근 체크를 철저히 하는 호랑이 같은 팀장이 출근전이라 한 숨을 돌렸다. 아침마다 늦잠 자는 부인 덕에 밥도 못 먹고 출근한다는 한 동료 직원이 배를 두드리고 들어왔다. 아마 구내식당에서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때서야 내 배도 잊었던 밥 때가 생각났는지 꼬르륵 거리기 시작했다. 까치집 머리모양으로 아침 거른 것을 눈치 챘는지 그 동료 직원이 컵라면이라도 먹으라며 등을 떠다 밀었다.

구내식당에는 아침 못 먹은 몇몇 다른 팀 직원들이 컵라면이나 빵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서글퍼 보이는지,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밥 해주는 아내가 있어 무척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쯤이야"하며 컵라면을 뽑아 따뜻한 물을 부어 먹는데 안 먹던 것이라서 그런지 영 당기지를 않았다. 라면을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하얀 쌀밥이 생각나서 채 반도 못 먹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쓰라린 배를 쓰다 듬으며, 업무를 시작하려던 차에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회사 정문 앞인데 잠시 나와 보라"는 말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한달음에 달려 나가보니, 저만치에 쭈뼛쭈뼛 서 있던 아내는 반갑게 손을 들었다. 제법 큼지막한 가방을 다른 한손에 들고서....

아직 밥 못 먹었지 ? 미안해. 도시락 싸왔어. 따뜻할 때 먹어."

아내는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니, 가방을 내 손에 맡기고는 때마침 저만치에 오고 있는 시내버스를 향해 뛰어가더니, 훌쩍 몸을 싣고는 떠나 버렸다. 뭘 이렇게 까지 하나 싶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내가 밥 한 끼 못 먹은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 싶어 마음 한 구석에 진한 감동이 일기도 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바로 달려왔을 아내는 '잘 먹을께' 하는 인사 한마디도 듣지 못한채 가 버렸다. 사실 황당한 마음에 쓸데없이 왔다고 핀잔 섞인 말이 나올 뻔도 했었는데, 어쩌면 빨리 가버린게 다행이었을 런지도 모를 일이다.

남들 보기에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구내 식당으로 갔다.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온 된장찌개와 모락모락 김이 솟아나는 하얀 쌀밥을 가방에서 꺼내 놓으니, 그 곳에 스며있는 아내의 따뜻한 사랑이, 그윽한 향기가 정겨움으로 코끝에 물씬 와 닿았다. 일순간 가슴이 뭉클해 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사랑이 가득 담긴 쌀밥과 된장찌개는 하루종일 나에게 넘치는 에너지가 되었다. 나는 소중한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전화를 했다.

"역시 쌀밥에는 된장찌개가 최고더라"

오광장

너와집

최 현 우 / 북구 용흥동

맑은 계곡 돌 바위 사이로
고엽하나 띄워보내니

멀리 새소리 들리네
모닥불 건너편 담장
너와집 하나가
안개 속에 묻혀
옛 조상의 보금자리인 듯
쉬어가는 새들의 노래방일세

앙상한 나무 가지에
하나 둘 투려진 감
까치의 먹이를 남긴
너그러운 마음일까

안개가 걷힌다
깨어진 토기 조각들
주인 없는 너세집
흐름에 기록이 남아
지붕 위엔 풍류를 잃은 듯
고초의 이름 모름이 뒹굴고
4,000년 길이 남긴 땀 흘린 사람들
비곡을 부른 이가 살았던가

임오년 정오
이끼 낀 담벼락에
만추만 고개를 숙이네.

그리움

박 지 영 / 북구 덕수동

하늘을 바라 보아도
바다를 바라 보아도
찬란한 태양을 바라 보아도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바라 보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나의 시야를 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나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만 말 한마디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움이 저의 입을 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마음속에서 지우기 까지는....

제2회 호미곶 해맞이 전국사진 공모전 금상 수상작

'소중한 등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이진환씨 출품

새 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

김 천 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장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지난달 25일 출범하게 됨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대북정책 기조로 보아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위기국면의 한반도 상황에도 적절히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 평화공존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북핵문제와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과 함께 그 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대내외 환경변화와 돌발상황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대화의 정례화 · 재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의 제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아울러, 당면하게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현실성있는 대국민 설득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다시금 재현되지 않도록 다양한 국민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고 추진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런 후에 평화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라든지 국민합의에 기초한 대북지원 비용의 경제적 효과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 대북정책과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을 취합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앞에 전개될 새로운 상황 변화는 민주평통 기능의 중요성과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다.

Pohang Good news

| '포스코 역사관' 5월 개관, 철의 역사 한눈에 |

국내 최초의 철강박물관이 될 포스코 역사관이 5월 문을 연다.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1백평 규모로 순수하게 철과 유리만을 재료로 사용하여 지었다. 전시관 입구에는 대형 철제솥이 이곳을 찾는 관람객을 맞이하게 되며, 2층 전시관에 있는 롬멜하우스가 특히 눈길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관은 한국 현대 철강사를 꿈, 땀, 힘, 꽃이라는 4개의 테마에 담아 구성을 하였고, 포스코 철강맨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사료 2천5백여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역사관은 한국 철강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포스코의 역사와 함께 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며, 앞으로, 동해안 최고의 문화공간인 동시에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동~동대병원간 도로' 공사 순조롭게 |

지난해 5월 착공한 '이동~동대병원간 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는 길이 1.3km에, 왕복 6차선 도로로 남구 대잠동 이동지구에서 동대병원까지 연결하는 대형공사인데, 오는 200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이동지구는 물론 지곡단지를 포함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대잠지구의 신도시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화 본격 착수 예상돼 |

철도청은 총 사업비 2조594억원이 들어가는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을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2012년에 완공하게 되며, 올해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반 기본설계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2004)' 내년 포항에서 개최 |

세계 물리학도들의 잔치인「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2004)」가 내년 7월에 우리 포항에서 개최되게 된다. 국제올림피아드 대회는 70여개국 800여명의 세계 물리학도들이 참가하여 9일동안 경진대회와 친선교류 행사를 갖게 되며, 우리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회의 포항 개최로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이어 다시한번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위상과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첨단과학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002 우리시를 빛낸 일들 |

구 분	내 용
행정자치부장관표창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문화축제 최우수기관 물가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지사 표창	물가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최우수기관 시군정보화 종합평가 2년연속 최우수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지방공무원소양고사 우수기관 보건교육 경연대회 우수 유공 인터넷새마을운동경진대회 우수 경북 환경상 (환경보전상)
기 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

|'포항지방4공단', 오는 5월 첫삽 |

포항시는 포항4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제반 법적 절차를 오는 4월까지 모두 마치고, 5월에 첫삽을 들어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오천읍 문덕리와 대송면 옥명리 일원에 2005년 12월까지 1,547원을 들여 634천평 규모의 포항4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1차금속과 조립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등 6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철강공단의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고, 철강산업의 활력소를 제공하며, 5천여명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연간 1조5천억원의 직 · 간접 생산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포항테크노파크, 사업 본격 전개 기대돼 |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 건축 연면적 3,141평 규모의 본부동과 벤처동 건립 공사를 마치고, 40여개의 기업과 연구소를 입주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해 왔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오는 4월 중순에 본부동 · 벤처동 건립 준공식을 열어 포항테크노파크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단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는 21세기 포항발전의 성장엔진인 첨단과학도시의 핵심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동시에, 포항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 포항공항 확장공사 완전 마무리돼 |

포항공항 확장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어 국제 규모를 갖춘 항공 인프라가 구축됐다. 지난 99년 동해면 도구리 인근 18만7천㎡부지에 6백3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공항의 3배 규모로 확장공사에 들어가 약 3년만인 지난달 2월에 완전히 마무리 됐다. 이미 지난해 6월 여객터미널이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준공됐다. 포항공항은 이제 중형기 등이 5대까지 동시에 머물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연간 78만여명을 수용하던 여객처리 능력도 1백87만여명을 늘어났고, 화물수송능력도 연간 6만8천여톤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우리 지역민들은 한층 편리하고 고급화된 여객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소식

2003년도 의회 운영계획

기본방향

-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강화
-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의정 구현
- 견제와 대안이 있는 의회 구현
- 연구하는 의원 · 실천하는 의회

신뢰와 화합으로 시민 위한 의회

의사운영

◀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례회 운영(35일 이내)

- 제1차 정례회(6월 20일부터) :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각종 안건처리
- 제2차 정례회(12월 5일부터)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 확정 등 각종 안건처리

임시회 운영(회기별 10일 이내)

- 월 1회 기준으로 개최, 각종 안건처리

상임위원회 운영

- 회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폐회중 운영 (각종 안건처리)
- 중요 안건 등은 고문변호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공청회 제도 활용

특별위원회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결산승인안 제출시 운영
- 기타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조사 및 특정사안 발생시 운영

의원 간담회

- 본회의 개의전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심사활동 결과 설명 및 당면한 의정활동 방향 논의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필요시 수시 개최)

• 당면한 의회운영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협의, 위원회 상호간 조정 · 협의사항 논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월 2회 개최

• 의회운영위원회 : 매월 셋째 금요일(필요시 수시 개최)
• 총무경제위원회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 보사산업위원회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 건설도시위원회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시정에 관한 질문

• 분기별 1회 실시하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및 대안제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수집, 시정에 대한 감시 · 비판과 시정요구를 통한 효율적 시정운영 도모

현장 의정활동 강화

• 예산안 제출이나 민원발생시 수시로 실시
•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 청취 등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실시

• 자체연수 : 외래강사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년 2회 실시(의회운영 절차 및 의회관련 법규해설, 예산심사기법 및 행정사무감사 요령 등)
• 국회위탁연수 : 국회사무처 연수국에 지방의회 의원 과정 이수교육을 년 1회 실시

국내 · 외 타도시 비교견학

• 국내 타도시 비교견학 : 상임위원회별 년 1회 실시하며 주요시설 · 제도, 의회운영 등 수범사례 비교분석
• 국외 타도시 비교견학 : 의원연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외 선진도시의 자치행정 (교통, 환경, 도시,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 중 특정분야에 한 테마를 지정하여 집중 비교분석

의원 전산정보화 교육

•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노트북 활용, 인터넷 정보검색, 전자우편 활용방법 등 년 1회 실시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성 강화

• 국회 · 중앙 및 도단위 위탁교육, 각종 세미나 · 토론회 등 참여기회 확대, 국내외 선진 의회 비교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강화

•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역량 결집
• 지역주민 및 상공인 등과의 간담회 개최, 중앙정부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 개최

◀ 중앙정부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한다.

민원상담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1개반 2명씩 상담반을 편성하여 주민 고충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상담 및 민원현장 방문으로 지역여론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
※ 포항시의회 고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연계 추진 (매월 마지막 민원상담의 날)

◀ 매주 수요일을 민원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한다.

의정협조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지역 유관기관, 의회 출입기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시정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시민 여론수렴,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적극 수렴

• 의정활동의 신속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으로 열린의정 구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
- 의정활동의 방청 및 공청회 활성화
- 의정활동 현장 생중계
-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의회안내 책자, 의회소식지, 시정홍보지 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회의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등 위문
-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시설 등 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소외계층 등을 방문 ·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농번기 영농지원
- 태풍피해 농가 및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 (9, 10월중)

산불조심 ·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의원 1일 현장체험
- 사회복지시설 간병봉사, 무료급식소, 환경미화원 1일 체험 등(9, 10월경)

「시민의견 청취함」 설치
- 남 · 북구청 민원실 및 각 읍 · 면 ·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열린의회 구현

포항 시의회 활동

제8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8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포항시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남 · 북구청을 방문 하였으며,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민사소송 패소원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또한,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심의하고 의결했다.

제8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8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지역과학기술특구지정건의안", "포항시수돗물불소화사업중단을 위한 청원 심사의건" 등을 심의 의결 하였다.

◀ 제8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10일부터 3월15일까지 5일간 개최됐다.

민사소송 패소원인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포항시의회 "민사소송 패소원인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연 의원)가 지난 2월 18일 개최 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 수행절차에 대한 업무연찬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민사소송 패소원인 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포항시의 민사소송 패소 판결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소송업무처리 및 소송수행의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조사의 범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 포항시에서 패소판결된 민사소송이 그 대상이 되며,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승소율을 높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게 된다. 포항시의회가 의욕적으로 구성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 · 감독을 통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사소송 패소원인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개최되어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남 · 북구청 방문

포항시의회는 제88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월 23일 남구청과 북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과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 의정활동도 실시하였다. 이날 공원식 의장은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구청인 만큼 공무원이 시민을 내 가족 같이 위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위로 · 격려하였다.

◀ 남 · 북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였다.

설맞이 불우시설 등 방문

포항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아 요안나의 집 등 4개 경로급식시설과 관내 3개 경찰서에 있는 전 · 의경부대를 방문하여 3백20여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참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치안과 교통업무에 고생이 많은 전 · 의경들을 위로 · 격려하였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포항시의회는 보사산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월 21일 불소화사업 찬반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열띤 찬반토론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우리시의회에 제출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행중지에 관한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개최되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 희생자 성금 전달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24일 공원식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희생된 사망자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대구 지하철 화재 희생자 돕기 성금 이백오십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한편, 공원식 경상북도시 · 군의회 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내 22개 시 · 군의회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대구시민회관에 마련된 대구지하철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오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으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서민들의 애환실은 전천후 교통수단 "소 달구지"

그 옛날 우리네 서민들의 애환을 싣고 다니던 소 달구지가 사라졌다.
가난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굽은 등처럼, 트고 갈라진 손바닥처럼, 비좁고 비틀린 어설프디 어설픈 길을 덜커덩 거리면서도 한껏 여유를 부리던 그 교통수단,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농촌의 삶을 대변해 주던 소 달구지, 우리는 그것을 '구루마라 불렀다. 소 달구지는 농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고 가장 빠른 최고의 교통수단이었고, 시골의 부드러운 풍경과 푸근한 인정을 담아내던 신기한 물건이기도 했다.

어렴풋이 기억속에 남아있던 소 달구지는 걷는 것보다 별반 빠르지도 않았고, 삐걱거리면서도 마냥 여유를 부려가며, 비포장길 신작로나 농로, 산비탈길 거침없이 덜컹대며 달려 나가던 전천후 교통수단이었다.
그런 소 달구지는 시골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한폭의 그림이며, 아름다운 시골풍경의 상징이기도 했다. 곡식이나 거름 등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중요한 운반도구이면서, 교통수단이었던 소달구지는 시골 최고의 교통수단이요, 우리 서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의 대표주자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볼품도 없었고 기능도 별로였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통수단이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농토가 많고, 넓은 평야에 있는 부자마을이나 한 동네에 달구지가 열 대가 넘었고, 농토가 많지 않은 산간마을은 두세 대가 고작이었을 정도다. 산간마을에서는 소 달구지 대신 주로 지게를 이용하여 짐을 날랐고, 지게를 지고서도 거뜬히 몇십리길을 오고가는 체력과 강인함이 있었다.

소 달구지는 시골에 오일장이 서는 날 가장 맹활약을 했던 것 같다. 흥해나 오천, 신광, 기계 등에서 장이 서는 날은 인근 마을 뿐만아니라, 사방 몇십리 안에 있는 마을에서 까지도 소 달구지를 몰고 꾸역꾸역 장터로 모여 들었다.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 포항장에는 소티재와 연화재를 줄지어 넘어왔고, 안강에서까지 소 달구지를 몰고 장을 보러 왔다. 장날은 온갖 달구지가 신작로를 오갔으며, 장터를 가득 메우곤 했다. 장날이면 몇십리를 마다않고, 아침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 볏섬 몇가마에 보리, 콩이며, 조, 기장, 수수, 녹두, 참깨 보따리, 말린고추, 장작다발 등 온동네 짐들을 죄다 싣고 나왔다.

산간벽지 마을에서는 달구지 위에 마을노인이나 아낙네 한두 명을 태우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에 나오곤 했다. 장이 파하고 돌아갈 때면 호미랑 괭이랑 생필품이 가득 실렸고, 넉넉한 시골인정까지도 실려 있었다. 출발하기도 전에 일치감치 자리잡은 마을노인들이나 아낙네들은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마을앞에 다다라도 이야기꽃은 끊일 줄을 모른다.

때론, 거나하게 술한잔 걸친 마을사람이 고함을 질러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지만, 그래도 푸근한 시골 인심이 변할 리가 만무하다.

어린시절에 구루마를 타는 것만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없었다. 꾀그만 학동들은 책보를 어깨 가로질러 질끈 동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교 길에 억세게 운좋은 날은 지나가는 소 달구지를 얻어타는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그것도 그냥은 그런 기쁨을 줄 리가 없다. 언덕배기를 헐떡거리며, 숨차게 오르는 소 달구지를 밀어주면 그제서야 주인 아저씨가 비록 꽁무니지만 집에까지 달구지를 태워준다. 그래도 코흘리개들은 저절로 신바람이 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의 살던 고향은…', '아가야 나오너라 달마중 가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몰래 돌을 던지자…' 학교에서 배운 노래 몇곡을 연거푸 신나게 불러 제끼며, 신이 한창 났을 때쯤이면 마을 어귀에 다다르지만, 내리기가 싫은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구루마를 얻어 타본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대단한 자랑거리였다.

달구지의 이름도 다양했는데, 어른들은 소가 끌면 '우차'라 하고, 말이 끌면 '마차'라 했다. 그리고, 바퀴가 네 개 달린 달구지도 어쩌다 간혹 보았지만, 바퀴 두 개짜리 달구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구지는 나무바퀴가 생명이었다. 뭐니뭐니 해도 칼날도 잘 안들어갈 정도로 야문 참나무를 골라 만든 나무바퀴가 최고다. 솜씨좋은 대장간의 목수는 나무가 잘 닳지 않고 하중을 잘 견디도록 자전거 부챗살처럼 나무심을 12개 정도 박아 나무바퀴를 만들고 바퀴 겉쪽에는 꼭 끼이게 쇠테를 빙두르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바퀴에 덧씌워 놓은 쇠테에는 쇠못 하나 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1년이고 2년이고 벗겨지지 않고 온전했다. 그것도 오랜 경험에 의해 체득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구지 바퀴를 끼우는 쇠막대 끝에서 핀을 빼면 그냥 나무바퀴가 빠진다. 해가 떨어지면 바퀴를 빼 개울까지 굴려 물속에 넣어 뒀다가 이튿날 건져다 다시 맞추면 물에 불어난 나무바퀴가 쪼그라들지 않고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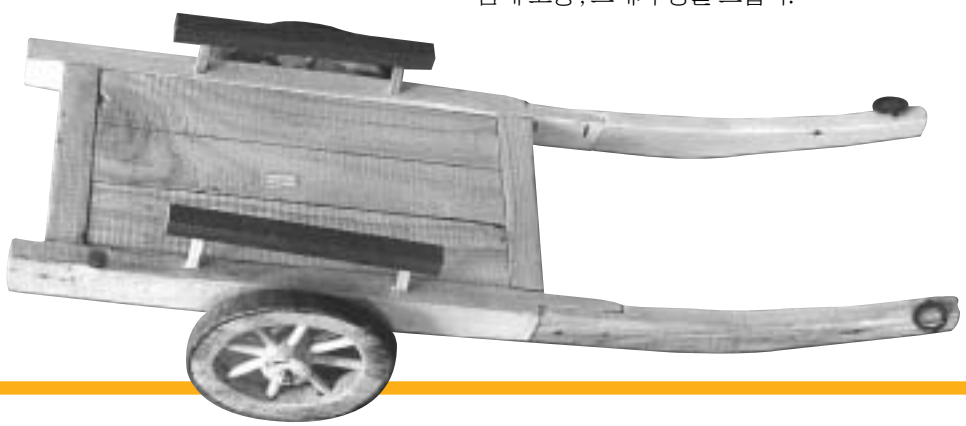
소 달구지는 주로 볏섬에 맞춰 제작을 했는데, 볏짚 가마니로 대충 가늠해서 가로로 4가마, 세로로 2가마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바닥 나무판자를 깔았으며, 보통 24가마 정도는 거뜬히 싣고 다녔다.

도회지에서 장거리 운송용으로 이용되거나 5일장을 찾아 다니는 장사꾼들이 애용했던 말이 끄는 달구지, 마차는 비단 옷감이며 농기구, 고기상자 등을 한 짐 가득 싣고 다녔다. 겨울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말들이 입김을 내뿜어 기차처럼 잇대어 오는 마차 행렬은 또 하나의 재미난 구경거리이기도 했다.

70년대 들어와 나무바퀴가 자동차용 고무바퀴로 교체되면서 소달구지는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사랑을 받아오며, 시골이나 도회지 할 것 없이 최고의 교통수단 역할을 해 왔던 소 달구지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근대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리어카와 경운기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새마을운동이 전성기를 누리던 70년대를 가로질러 80년대 문턱을 넘어 설 무렵부터는 시골 어딜가도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박물관이나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골동품 신세가 되어 버렸다. 리어카와 경운기, 트랙터, 그리고, 트럭에 밀려 저멀리 추억의 한켠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덜커덩 덜커덩 거리며 뽀얀 먼지 펄펄나는 신작로를 달리던 그 추억의 구루마를 기억할 것이다. 추억의 사진첩에 묻혀진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소 달구지,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를 만나 얻어 탈때면 그렇게 신이 나고 좋아했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 진다.

소박한 동심과 꿈을 키우던 까까머리 시절에 검정 고무신, 책 보따리, 코흘리개 동무들…, 모두가 추억의 단초들이다. '소 달구지 덜컹대던… 시골길은 마음에 고향', 그때가 정말 그립다.



| 재미있는 건강상식 |

■새치 많은 젊은 사람 비타민 E 많이 섭취해야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새치는 노인들의 흰머리와 달리 머리카락 속에 기포가 들어가서 희게 된 것이므로 산소공급을 위해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또 비타민 B는 머리카락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우유나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미정제의 저온 압착 식물유 특히 소맥배아유, 콩기름이 좋다. 완전곡류의 싹눈, 견과류, 밀, 소맥배아(1주일 이상 된 것은 안 된다), 푸른잎 야채 및 계란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눈의 피로, '결명자 차'로 말끔히

컴퓨터를 오래 이용하는 사용자나 기안 서류를 읽고 이를 많이 작성하는 샐러리맨들에게 있어서 가장 혹사당하기 쉬운 기관은 뭐니 뭐니해도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때는 결명자 차를 마시면 좋다. 결명자를 차로 복용할 때는 하루 6~12그램의 범위내에서 달여서 마시도록 한다. 눈에도 좋고 변비까지 해결해 주는 결명자 차로 맑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결명자에 함유된 amthraquinone 화합물이 장의 연동운동을 빨리 하여 변비 치료제로도 쓰인다. 한의학적으로는, 간열(간질환으로 인한 열), 풍열(순환기계질환)로 인한 충혈, 눈이 찜찜하고 눈물이 나는 증상, 현훈(머리가 어지러운 증상), 두통, 변비등을 치료하는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방(여러가지 약을 배합한 처방), 단방(한가지로만 쓰는 처방), 혹은 산제(가루약)로 애용되고 있다.

■위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케일,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서 즙을 마시면 위에 좋다. 알로에 껍질을 깎아 먹어는 것도 한 방법. 아침저녁으로 양배추와 케일즙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길러 보면 어떨까 ?

시장에서 대추를 5되씩 사서 깨끗이 씻고, 대추를 푹 삶은 다음 양파망 같은 데다 넣고 걸쭉하게 짜서 한컵씩 드셔도 위에 좋다.

■편두통 심할 때 벌꿀 먹으면 1시간내 통증 없어져

편두통이 심할 때 벌꿀을 한 숟갈 정도 먹어 보라. 웬만하면 1시간안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또 아픈쪽 콧구멍에 무즙을 조금 넣은 다음, 신선한 콩비지를 따뜻하게 데워 헝겊으로 싸서 아픈쪽 머리에다 대고 있으면 얼마 안 있어 통증이 멈춘다.

■음식으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초콜릿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마그네슘과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화학물질인 엔돌핀이 함유돼 있어 우울할 때 좋고, 슬플 때는 푸딩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간식으로 먹으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슬플때에는 부드러움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또한, 공포에 질렸을때는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땅콩버터를 먹으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감정이 산만할 때 박하차나 박하사탕의 예리한 맛을 보면 정신적 안정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심이 있을 때는 구운 감자나 파스타, 빵속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혈당의 급속한 변화를 막아 주기도 한다. 질투날 때는 날카로워진 당신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선 달콤한 것이 최고인데, 파인애플, 배 쥬스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

외로울 때는 집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섞여 감자튀김을 먹어보라. 세로토닌이란 화학물로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즈마리 향료와 함께 차나 감자를 먹으면 끓어 오르는 분노를 진정시켜 줄 것이다.

| 생활의 지혜 |

■마우스가 헛돌 때는 이렇게

마우스가 헛돌 경우에는 마우스 아래에 있는 볼을 청소해 주면 된다. 마우스를 뒤집어 보면 볼 주위에 'OPEN' 'CLOSE'나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돌리면 볼을 분리해 낼 수 있다. 볼을 빼서 볼 주변의 부속들에 낀 불순물들을 핀센트 등으로 제거한 뒤 부드러운 천에 세제를 묻혀 닦아준다. 볼에 묻어 있는 먼지도 떨어낸다. 이때 밑판을 고정시킨 나사를 풀거나 마우스를 분해하면 센서가 망가질 수도 있다.

■요리의 거품을 쉽게 걷어내려면

국이나 찜 요리에서는 국물 위에 생긴 거품을 국자로 일일이 걷어내 줘야 한다. 거품을 걷다 보면 국물도 듬뿍 버려지게 되기 마련이다. 국자를 이용해 걷어낼 때 종이타월을 함께 이용하면 쉽고 말끔히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 구멍 뚫린 국자 위에 가운데를 +자로 자른 종이타월을 놓고 거품을 걷어내면 거품이 종이타월로 스며들어 알뜰하게 거품이 제거된다.

■두부전은 두부를 소금물에 끓인 후에

두부전을 부칠 때는 두부의 물기를 빼고 굽는다 해도 잘 구워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두부가 눌러 붙어 두부살이 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먼저 냄비에 소금물을 조금 끓인 다음 두부를 적당한 크기와 두께로 잘라서 냄비에 넣고 다시 끓인다. 잠시 후 두부를 꺼내어 부치면 처지지 않고 잘 부쳐진다. 또 두부를 데칠 때도 끓인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 그러면 두부가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봄철 화분의 벌레는 이렇게 퇴치하자

겨울내내 베란다에 있던 화분에 벌레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그대로 실내에 두면 벌레나 세균이 집 안에 옮겨와 아이들 건강에 특히 좋지 않다. 화초를 옮기기 전에 담배 우린 물을 뿌리면 된다. 스프레이에 담배꽁초를 넣고 전체적으로 몇 번 뿌려주면 화초 벌레를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

■쓰레기통의 냄새를 이렇게 없애자

음식물 쓰레기 같은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오래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쓰레기통 밑바닥에 신문지를 몇겹 깔고 그위에 표백제가 든 세척액을 뿌려두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해 냄새를 막을 뿐 아니라 살균 소독의 효과도 있다. 또 쓰레기통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도 잊지 말도록 하고, 세척액으로 자주 씻어 주는 것이 좋다.

■식탁에 생긴 뜨거운 그릇자국 식용유 묻혀 닦으면 'OK'

깜박 잊고 김이 펄펄 나는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 놓았는데 흰 얼룩이 생겼다. 이럴때는 마른걸레에 식용유를 묻혀 가볍게 문질러면 가볍게 싹싹. 소주나 담배를 담근 물로 닦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웬만한 나무 탁자의 얼룩은 사라질 것이다. 단, 합판으로 된 이중도장한 제품의 안쪽까지 하얗게 되었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눅눅해진 과자를 바삭바삭하게

습기가 많은 날에는 김이나 과자를 잠깐만 꺼내 놓아도 금방 눅눅해진다. 이럴때 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5초정도 가열하면 다시 바삭바삭해진다. 과자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눅눅해질 경우, 접시에 담아 랩을 씌우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1~2분정도 넣고 가열하면 다시 고슬고슬해진다.

■매일 입는 양복, 효율적으로 클리닝하자

매일 입고 다니는 양복 일지라도 드라이 클리닝 값이 너무 비싸서 한 철에 한두번 밖에는 클리닝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때는 다림질을 자주 해 주면 미관상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옷을 해치는 벌레의 알도 없애 주므로, 옷의 수명을 길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때를 그대로 둔 채로 다림질을 하면 후에 클리닝을 할 때 때가 잘 빠지지 않게 되므로, 벤젠이나 휘발유로 때가 많이 타는 부분을 닦아 내고 다림질을 하면 클리닝을 한 것이나 별다른 차이없이 깨끗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

알림터 information Box

'에너지 절약', 어렵지 않아요.

최근 중동지역 전쟁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에너지를 절약하여 사용해야 겠지요. '에너지 절약',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속에 실천해야 몇가지를 꼭 지켜 주세요.

가정에서는 실내 난방온도를 20℃정도로 유지하고, 다림질과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면 경제적 이겠지요. 그리고, 가스렌지 불꽃은 한단계 낮추어 주시고, 온수 사용은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산업현장 등에서는 3층이하 승강기 운행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한가지 더, 옥외 조명과 네온 사인의 사용을 조금만 자제해 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우리 모두 차량 이용시에는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요. 급출발, 급정거는 물론 하시면 안되겠지요. 특히, 자가용 함께 타기나 차량 10부제에 적극 참여해 준다면, 에너지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속에 실천이 필요합니다.

봄철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봄철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인 산림을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시청 산림과(☎ 245-6323)나 구청,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또는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객실이 10개 이상인 기존의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직까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소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일일취업센터가 이전하였습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포항일일취업센터를 지난해 9월 2일 형산로타리 인근 대원상호저축은행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일일취업센터는, 일용 근로자들에게 건설현장, 제조업체, 서비스직종 등 다양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오고 있으며, 일용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정보와 정부 실업대책 안내, 취업알선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구인구직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포항일일취업센터 (☎ 272-1011~2)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의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2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요금(시지역)

구분	종 전			변 경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일반	700	550	350	800	650	400
좌석	1,050	900	600	1,150	1,000	600

▶외곽지 요금 :

변경전 요금에서 50원~100원 인상(평균 4.7%)

경상북도에서는 아이디어 대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정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도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 9월말까지이며,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에 시민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 주세요.

아이디어 대상 공모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053-950-2934)나 우리시청 총무과(☎245-6084)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3 시즌 포항스틸러스 홈경기 일정 안내

일 자	경기시간	장 소	상대팀	비 고
3. 23(일)	15:00	포항종합운동장	안양	1라운드
3. 26(수)	15:30	"	울산	
4. 12(토)	15:30	"	수원	
4. 30(수)	15:30	"	상무	
5. 11(일)	15:30	"	대구	
5. 21(수)	15:30	"	전북	
6. 14(토)	15:30	"	전남	2라운드
6. 21(토)	15:30	"	부천	
6. 28(토)	15:30	"	성남	
7. 5(토)	19:00	포항축구전용구장	대전	전용구장개장
7. 12(토)	19:00	"	부산	
8. 2(토)	19:00	"	안양	3라운드
8. 6(수)	19:00	"	수원	
8. 20(수)	19:00	"	상무	
8. 31(일)	19:00	"	울산	
9. 7(일)	15:30	"	대구	
9. 21(일)	15:30	"	전북	
9. 28(일)	15:30	"	전남	4라운드
10. 8(수)	19:00	"	부천	
10. 26(일)	15:30	"	성남	
11. 5(수)	19:00	"	대전	
11. 12(수)	19:30	"	부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시책들

▶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시행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여성채용 목표제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가 시행된다.

▶ 병무민원 상담전화 전국통일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되어 오던 병무민원 상담전화가 지역번호 없이 1588-9090으로 통일되어 운영된다.

▶ 인감증명서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 가능

지금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해오던 인감증명서를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 가서나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주민감사 청구주민수 하향조정

우리시에서는 주민감사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20세 이상 주민 5,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한다.

▶ 법정기념일의 변경 및 신설

재향군인의 날이 종전 5월 8일에서 10월 8일로 변경되고, 법의 날이 5월 1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된다. 또한,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신설한다.

▶ 공공요금이 변경 조정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2.2%, 상가나 공공기관의 일반용이 2.0% 인하되고, 산업용은 2.5%인상된다. 우편요금은 등기우편 수수료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250g 기준)되는 동시에, 우편요금 190원이 추가되어 등기우편 1통 송달시 1,490원이 들게 된다. 이동전화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가 인하된다.

▶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기회 부여

자동차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반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던 것을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한 번호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 상한선 전면 폐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 폐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곧바로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자 처방전 교부 및 원격의료제도 시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가 시행된다.

'재포 태백향우회' 창립, 포항발전 견인차 역할

우리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 향인 80여명이 참여하여 지난해 10월 '재포 태백향우회'를 창립했다. 허영준 스튜디오 대표인 허영준씨가 회장을 맡아 향우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신천수(포스데이타)씨, 정홍규(INI스틸)씨, 정병호(대성테크 대표)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세계몬테소리어린이집 김성오 원장이 총무를 맡아 태백향우회의 살림을 살고 있다.

'재포 태백향우회'는 앞으로, 태백 향우인들의 결속을 다져 나가면서, 고향인 강원도 태백시와 현재 살고 있는 포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교량 역할을 하며, 고향 발전과 더불어 포항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는 향우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연락처 : 총무 김성오 011-516-2932)

'재포항연합향우회 협의회', 제2의 도약 꾀해

'재포항연합향우회 협의회'는 지난 2001년 7월 16일 재포 강원도민회, 재포 호남향우회 등 포항에 있는 48개 향우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포항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민운동을 전개해 오는 등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충북향우회 김병훈 회장이 초대 협의회장을 맡아 포항발전에 앞장서 왔던 협의회는 지난 1월 22일 호남향우회 김영신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통해 건실한 연합향우회로 발전시켜 제2의 도약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지역 48개 향우회로 구성되어 있는 '재포항연합향우회 협의회'는 회원만 해도 1만4천여명에 이르며, 회원이 아닌 향인들까지 친다면 포항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머 천국

다 • 함 • 께 • 웃 • 어 • 봅 • 시 • 다

염치없는 거지…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
"만원만 줍쇼 ! "
"염치도 없이 천원도 아니구 만원을 달라고요~~ ! ! "
그러자 거지가 하는 말
…… ……
"저~~ !! 사실은요 ~~ 오늘 제 딸 생일이라"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고 갈려구요."

식사중의 파리

딸과 함께 사는 엄마가 어느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딸이 밥을 먹다가 불쑥 물었다. "엄마, 파리가 맛있어 ?"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다.
"밥먹다가 그런소리를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러자 딸이 하는 말,
…… ……
"아니, 엄마가 국에 빠진 파리를 그냥 먹길래 …"

진지한 장난

오늘 영희는 오랜만에 버스 대신, 전철을 타고
압구정에 가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압구정까지 가려고 표를 사려는데…
"아저씨 압구정 얼마예요 ?"
전철역 아저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음…. 글쎄요….,
아마 잘 모르긴 해도 몇천억은 줘야되지 않나요 ? "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가 영호네 집을 찾았다.
“여기가 영호 씨네 집이 맞나요?”
“예.”
“그럼 부인은 어디 계시지요?”
영호는 아내 진희가 있는 침실로 안내했다.
진희를 본 산타클로스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영호가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점잖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를 달라고 했자나여~~ —.—”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아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하고 소년이 말했다.
"왜 가기 싫지 ?"
"지난주에 학교 농장에서 닭 한마리가 죽었는데,
다음날 점심으로 닭 수프를 먹었어.
그리고, 3일전에는 돼지 한마리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에는 돼지 불고기를 먹었거든"
"그런데 왜 오늘은 학교에 가기 싫어 ?"
…… ……
"어제 영어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말야 !"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퍼즐세상

Q

〈가로열쇠〉

①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
④산의 등줄기를 이르는 4자로 된 말
⑦1919년 3 · 1운동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한용운 님의 호
⑧얼마전까지 벤처기업들이 이것을 터뜨리며, 벤처 붐을 조성해 왔고,
최근에는 '인생'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로또복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섰다고 함
⑨형세가 뒤집어짐. '인생 '
⑩적의 점령지
⑫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질이나 운명을 판단하는 것

〈세로열쇠〉

①우리 포항은 30여년전 황량한 영일만 갯벌위에 포항제철을 세워 국제적인 철강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이 것을 ' 기적'을 이룩했다고 한다. 근래에 와서 '제2의 기적'을 이룩하여 21세기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포항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본지 "특집" 코너에서 해답을 찾아 볼 수도 있다.
②기업이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여 망하게 되는 것. 부도, 파산 등과 같은 말
③북구 신광면의 면소재지가 있는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며,
본지 '우리고장의 명소를 찾아서' 코너에 소개되어 있다.
⑤호미곶에 있는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해양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⑥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서로 통함.
⑪열다섯 살 나이, 학문에 뜻을 둠

지난호 정답

면	봉	산	■	퇴	■
죄	■	행	동	거	지
부	산	■	상	■	역
정	■	기	생	역	경
부	지	사	의	■	제
패	■	■	손	짐	작

● **감사드립니다**

지난호(통권 제42호, 2002년 겨울)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적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들은 하나하나 반영하여 알찬 내용의 향토소식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의견과 소감을 적어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편집자)

● **'통권 42호' 응모에 담첨되신 분**

김두원(대잠동), 서상욱(지곡동), 조영실(청림동), 신은정(흥해읍), 정현주(인덕동), 박춘래(오천읍), 배경순(흥해읍), 김미영(대송면)
이흥규(해도1동), 진기문(오천읍), 이원두(오천읍), 김현주(우현동), 박희교(두호동), 박종화(대잠동), 황찬수(두호동), 황혜림(두호동)
김한솔(창포동), 권기남(두호동), 채영순(대신동), 안달문(청하면)

「열린포항」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포항」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자연처럼, 늘 변화하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자랑스런 포항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마당"으로 꾸며 가고 있습니다.

'열린포항'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로「열린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린포항」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리와 글들을 다양하게
담아 삶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문화의 향기'로,
'포항인의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
살기좋은 포항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청량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시정에 바라는 이야기
- 시민 여러분이 하고픈 말이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 시, 수필, 꽁트, 기행문 등의 창작품
-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체험담
- 고향을 떠나 계시는 향우님들의 활동, 미담, 에피소드
- 포항의 얼을 살리고 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글
- 우리회사, 우리업소, 우리마을 자랑거리 등

※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791-701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포항시 문화공보과「열린포항」담당자 앞
연락전화 : (054) **245-6061, 6734,** FAX **246-0029,** E-mail : mwcheon@ipohang.org

사진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동빈내항에 정박해 있는 황포 돗단배 (1920년) ▲

동빈내항을 오가는 황포 돗단배 (1966년) ▲
※ 생필품과 인력수송 등의 주요교통수단

논에 물을 퍼는 광경(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1967년) ▲

오늘날 효자동 철길 건널목 자리에 있었던 효자검문소 (1968년) ▲

포항의 과거를 찾습니다

오늘의 포항을 있게 한 과거 포항의 향토상을 담은 기록사진(자연경관 및 시설물, 인물, 행사사진 등)을 찾고 있습니다. 【열린포항】을 통해 52만 포항시민들이 포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록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분은 문화공보과「열린포항」편집자(054-245-6061,6734)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2의 영일만의 기적 창조 1편
영일만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포항정신으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룩 하겠습니다

www.ipohang.org

HighTech Steel City _ POHANG

하이테크 철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계1위의 철강생산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발과
포항4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금속기술 혁신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철강시장을 선도할 하이테크 철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열린포항

「열린포항」은 시민여러분께 시정의 주요부분을 소개하고,
「포항의 얼」과 시민들의 순수한 삶의 모습을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보는『열린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신 후에는 이웃에게 건네 주세요. 이웃과의 정이 더욱 깊어 집니다.